

함께가는 여성

2010.9.10 www.womenlink.or.kr

기획 거울鏡; 비춰보기

민우ing

- '물카'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한양대학교 학사지원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한다!
- 나는 비밀이 있습니다

민우칼럼 창 싱가포르 성폭력 관련기관을 방문하고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만들기 '함께 짓는 맛있는 노동'



한 그릇의 밥에 고마움을 엿어요 당신이 고맙습니다

모두가 매일 먹어야 하는 밥,
하지만 그 의미에도 불구하고 식당노동의 대가는 참 가혹합니다.
1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 정당하지 못한 저임금, 법의 사각지대
밥 먹고 있을 때 손님이 오면 식당노동자의 밥은 언제나 미완성입니다.

2010년 민우회는
식당노동자는 인권적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고객은 인권적 노동환경에서 만들어진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손님에게, 사장에게, 동료들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존중받는 노동환경,
그런 인권적인 노동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
함께 짓는 맛있는 노동'을 꿈꾸는 이유입니다.

함께가는 여성

2010. 9·10



02 민우ing

‘몰카’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한양대학교 학사지원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한다!
나는 비밀이 있습니다

11 민우스케치

12 민우칼럼 창

14 생생한 시각

싱가폴 성폭력 관련기관을 방문하고

네 가지 이야기로 풀어보는 건강보험

‘성차별금지법’을 제안한다

20 문화산책

23 기획

함께 독립하기 - 해방촌 게스트하우스 빈집

거울鏡; 비춰보기

- 겨묻은 개가 똥묻은 개 나무라기

- 꼬리표 붙이는 사회

- 내가 나를 비추는, 거울을 보기 위한 준비들

32 새로운 페이지

34 마포나루에서

36 나의 삶 나의 이야기

치유하는 글쓰기를 안내하다

업무 시간에 딴 생각하기

故서혜란 부회장을 기억하며

40 모람풍경

42 생협이야기

44 9개의 시선

46 지부소식

48 독자마당

회원참여기획단 “다다다” 풍경

생협법 개정, 생협이 더 큰 날개를 달다

컷, 씬, 씨퀀스, 스토리... 한편의 영화



* ‘함께가는 여성’의 필자명은 실명과 필명을 함께 씁니다. 단, 필명만 있는 것은 필자의 요청에 의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발행처 한국여성민우회 발행인 권미혁 김인숙 편집인 박봉정숙 발행일 2010년 9월 30일 통권 199호

편집위원 권미혁 김민균 노재윤 이인화 인은숙 오세은 정슬아 최진현 조성아 디자인 일탈기획 02-2275-8447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49-10 시민공간 나루 3층 전화 02-737-5763 전송 02-736-5766 이메일 minwoo@womenlink.or.kr

‘몰카’¹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이선미(선:仙) ● 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어느 날 찾아 온 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이 정체불명의 단어가 통용되기 시작한 때는 90년대 초, 리얼리티를 표방한 모방송사의 TV쇼가 그 시작이라 할 수 있겠다. 설정된 상황을 스타만 모르게(?) 숨어서 그 사람의 인간적인 면모를 가감 없이 보여주겠다는, 그리고 감동과 웃음을 선사하겠다는 취지. 그 TV쇼의 인기로 몰카 형식을 띤 다른 방송도 생겨났고 흥했다. 그 여파로 지금도 간간히 유사 프로그램을 목도할 수 있다. 몰카는 시청률을 낚으며 몰코를 트더니 최근에는 활

용범위의 경계가 사라지고 변화되어 다양한 형태와, 행위로, TV쇼가 아닌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왔다.

불편불쾌, ‘몰카’라 통칭되는 것들

두리번두리번, 문을 닫고 들어가 내부를 훑 살폈던 경험. 한때 공중화장실에 갈 때마다 행했던 나름의 이용 매뉴얼이다. 마스크를 타고 집중 보도됐던 소형카메라의 위협은 내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바로 그 칸에도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양산했다. 화장실 너마저 맘 편히 가기 힘들다니

1 ‘몰카’는 몰래카메라의 준말로, 민우회상담소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한 소위 성관계 동영상을 지칭하는 협의의 개념으로만 사용됨을 밝히는 바이다.

2 person to person, 개인 대 개인 파일 공유 기술 및 행위

더 이상 그곳은 해우소가 아니다.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모텔,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나타나는 몰카의 위협은 일상화 되고 있고 그 몰카들은 음란물 사이트나 P2P 사이트²를 통해 유통되며 소비되고 있다. 몰카의 위협은 단순히 몰래 찍히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공간으로의 침입에 대한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상황에 대한 공포인 거다.

어떤 ‘몰카’에 집중하는가

2009년 상담소의 몰카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니,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공장소에서의 피해보다는 전 연인관계 내지는 친밀했던 관계에서의 피해가 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후자의 경우 ‘몰카’가 존재하든 안 하든 유포하겠다는 협박하는 경우도 있고, 핸드폰 등을 통해 나체사진 또는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거나, 상대방의 동의하에 찍었더라도 이후 동의 없이 유포시킨 경우가 있다. 2, 3년 전에는 ‘몰카’의 존재 혹은 유포에 대한 공포를 이용해 협박하는 스토킹 상담들이 주를 이루었고, 최근 들어서는 P2P에 영상이나 사진이 이미 유포되어 버린 상담이 늘고 있다.

피해 경험을 모아보니 ‘몰카’ 유포협박 및 유포는 보복이나 복수의 감정으로 위협, 또는 공격을 가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일방적인 관계 지속을 위한 회유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는 스토킹의 수단으로 몰카가 이용되고 있는 최근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영상기기에 대한 접근성과 유포의 편리함으로 ‘몰카’의 활용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 예견되는 만큼 ‘몰카’와 관련한 피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이 필요하다.



그 사람의 목소리

‘몰카’로 인한 피해의 목소리에는 짙은 불안이 서려있다. 인터넷은 빠르게 ‘몰카’를 흡수하고 널리 전파한다. 다운로드 한 번으로 누군가는 나의 경험을 소비한다. 그것도 흥미위주의 음란물로, 사람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에 의해 피해는 묻히고 당사자는 고립된다. 이는 결국 피해를 주장하고 맞서기 위한 결단, 주변에 이야기해서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결심으로 힘내는 마음에 다다르지 못하는 ‘겉핥기’로 작용한다. 피해자의 목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그 내용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는 것은 협박에 시달리는 피해자에게 절망과 고립감을 안겨준다. 그렇다면 협박을 하는 사람과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이 뭐가 다른가.

‘몰카’ 속 그 때를 함께 했던 이는 보이지 않고 피해의 목소리만 남아 못시선을 받는다. 더 가관인 경우 도리어 ‘몰

카'라는 칼자루를 쥐고 흔드는 권력자가 된 그 사람이 있다. 왜 누군가는 사라지고 누군가는 그것을 권력으로 이용하게 될까.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 답답하다.

‘몰카’에 가려진 이야기

어떤 과정을 거쳐 드러났든 어떤 상황이든 그가 누구든! 그 ‘몰카’가 세상에 공개될 때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는 하나다. 여성! 물론 다른 이들에게 이야깃거리의 화제가 되는 대상도, 피해가 드러나거나 사건화됐을 때도, 모든 건 그녀의 문제가 된다. 그 여성의 살아온 경험이 어떻든, 역사가 어떠하든, 나이가 몇이든, 무엇을 하든, 비혼/미혼/기혼자든지 ‘몰카’와 대면하는 순간, ‘문제가 있는 여성’으로 귀결된다. ‘몰카’ 문제의 핵심은 사라지고, 사회는 그녀 자체를 문제시한다.

왜 ‘몰카’는 침묵을 부르나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 섹슈얼리티는 규범화되어 있다. 성적 존재로서 여성은 배제되어 있고, 성적 욕구나 경험을 드러내선 안 된다고 학습되고 있다. 이에 배반된 행동을 한 ‘몰카’의 피해 여성을 사회는 칠칠치 못하거나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 금기를 깬 존재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평가와 비난을 서슴지 않으며 호기심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그것은 그녀의 탓이니, 개인적인 문제인 거다. 이에 ‘몰카’는 분풀이든 복수든 협박을 하기 위한 도구든, 피해자에게 상대가 휘두르는, 거역하기 어려운 무기가 된다. 일방적인 권

력을 쥐고 흔드는 쪽이 늘 정해져 있는 구조인 거다. 그래서 그녀는 말할 수 없다.

핵심을 변화시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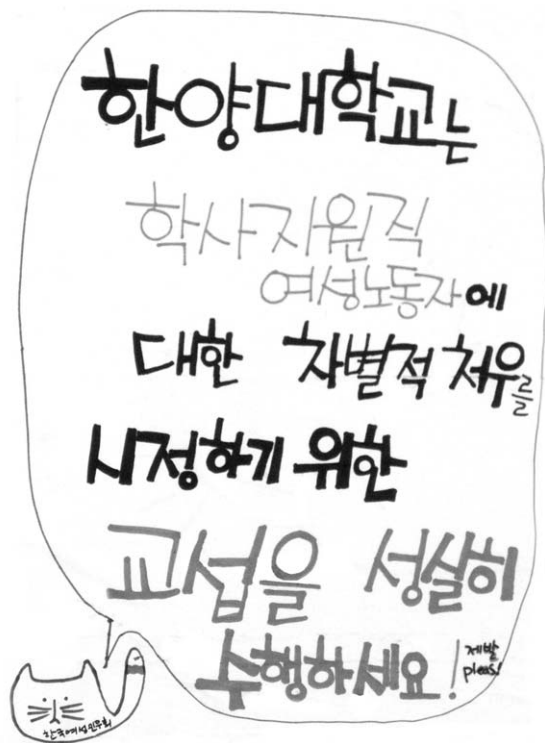
문제를 개인화시키는 것만큼 쉬운(?) 해결책은 없다. 기대하는 여성 섹슈얼리티를 규정짓고

그 틀 안에 가두려 하는 사회 구조와 이를 이용해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몰카가 이용되고 있다. 이는 문제의 해결은 고사하고 더 악화시키는 양상을 낳게 된다. 유포에 따른 피해는 심각해지고 그 사례도 늘고 있는 상황.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축소할 수 없기에,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통의 과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변화를 위한 도약

‘몰카’의 위협과 위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또한 개인화되기에 감당해야 하는 몫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래서 그녀들의 목소리를 모아 변화를 꾀하고자 한다. 이에 상담소는 집중상담기간을 통해 이야기를 모으고, 다양한 온라인 캠페인의 형태로 발현될 〈몰카를 추포하라〉를 계획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지금의 판에 균열을 내보자. 언젠가는 깨지고 부서져 ‘몰카’라는 말이 사라질 때까지. 함께 힘을 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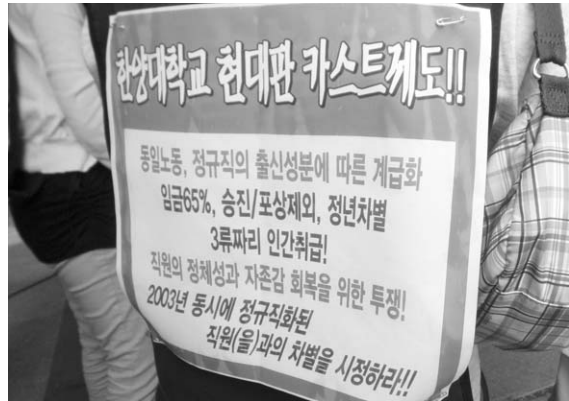


구미호가 바라 본 요지경 세상!
한양대학교 학사지원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한다!

이소희(바람) ● 민우회 반차별 회원(청춘)팀

- 미호 :** (두리번거리며 낮은 세상에 눈이 둥그래진다.)
대웅아~대웅아~세상 참 많이 달라졌다! 대학이 이런 곳이구나. 사람도 많고, 생기도 넘친다! 우와~!
- 대웅 :** 미호야~ 빨리 와! 오늘까지 수강 신청 마무리해야 해! 빨리 와!
- 미호 :** 응! 대웅아~ 근데 500년 전처럼 아직도 '계급제도'가 있는 거야?
- 대웅 :** 무슨 말이야?
- 미호 :** 저기 말이야! 저기 큰 건물 앞에 있는 천막 앞에 쓰여 있는 글씨 봐봐!
'한 학교 안 다른 대우, 차별이 웬 말이나? 현대판 계급제도 반대한다!'

그림 속에 500년 동안 갇혀 있다 세상 밖으로 나온 구미호는 너무나도 많이 달라진 세상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세상에 놀라는 것도 잠시, 500년이 흘러도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에 미호는 그만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차이'로 인간세상에서 남자의 간을 파먹는 요괴로 정체화되어 500년 동안 그림 속에 갇혀 살아야 했던 구미호는 다시 돌아온 2010년에는 부디 '차별없는 세상' 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수십 번 강산이 변하고 사람들의 가치관도 과거보다 많이 말랑말랑 유연해졌다 해도, 큰 학문을 배우는 대학(大學)에서 버젓이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2010년 구미호가 바라 본 요지경 세상입니다.



대응아! 도대체 너네 학교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우리 저기 천막에 한번 가보자!

한양대학교에는 소위 세 개의 계급이 있습니다. 정규직 갑 계급은 정년 58세, 본인 임금 100%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을 계급은 정년 58세, 정규직 갑 계급 임금의 80%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병 계급은 정년 50세, 갑 계급 임금의 65%를 받으며, 전원이 여성으로만 구성된 학사지원직 노동자입니다. 뜨거운 여름 별이 내리쬐는 한양대 본관 건물 앞 천막은 학사지원직 여성노동자, 즉 병 계급이 지난 봄날 세운 것입니다.

한양대학교 학사지원직 여성노동자는 2003년 이전까지는 ‘조교’라고 명명되며 1년에 한 번씩 학교와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2003년 이후에는 학사지원직이라고 불리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학사지원직 여성노동자는 학내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1년에 한 번씩 학교와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규직 노동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꺼림직한 것이 많았습니다.

갑, 을, 병 세 그룹은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일을 하였고, 동일한 업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정년이 다르고, 임금이 다른지 학사지원직 여성노동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학사지원직 여성노동자는 정년과 임금차별의 부당함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학교는 67명의 학사지원직 여성노동자 모두를 단과대학으로 발령하였습니다. 학교는 “이제 오피스가 다르니 정년과 임금이 달라도 문제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피스를 구분하였다고 해서 정규직원 갑 그룹과 학사지원직이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을까요?

단과대학과 대학본부 업무는 분리하여 사고할 수 없었고, 정규직원 갑과 학사지원직 여성노동자는 동일한 업무를 하며 함께 업무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피스가 다르기 때문에 정년과 임금 차별이 당연하다.’는 학교의 논리는 잘못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사지원직 여성노동자들은 엄연한 학내 구성원이면서도 직원평의회에서 제외되고, 포상 적격자이지만 ‘태생이 조교’라는 말을 들으며 포상 대상자에서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지만 학교의 차별정책으로 열정을 잃고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학사지원직 여성노동자의 현실입니다. 학사지원직 여성노동자는 차별 시정을 위한 교섭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학교는 교섭에 응하지 않고, ‘태생’ 만을 운운하였습니다. 태생이 조교이기 때문에 임금 및 정년 차별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은 여성이 하는 일을 저평가하는 낡은 고정관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학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학사지원직 여성노동자는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에도 직접 찾아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노동부 인권위에 진정을 하고 언론사에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보드랍게 불던 5월의 봄날 파란색 조끼를 입고 파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파업 이후에는 매일 출퇴근 집회를 하고, 한양대학교 구성원들에게 진심어린 호소를 합니다. 지난 7월에는 학사지원직 여성노동자 한 명 한 명의 재치와 끼를 담은 촛불문화제도 하고, 청담동 한양대학교 총장의 집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도 합니다. 봄, 여름, 이제 가을 세 번의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응이! 병수랑 선녀한테 전화해 봐! 반두홍 감독이랑 동주선생한테도 연락하자! 지금부터 우리 힘을 합치자!

모르쇠 정책으로 일관하며 공식적인 협상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은 학교는 학사지원직 여성노동자 한 명 한 명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과 회유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웠던 8월, 몸이 지치니 마음도 약해집니다. 학교의 협박이 두렵기도 하고, 학교의 회유에 모르는 척 넘어가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무너질 싸움이라면 시작하지도 않

았을 것입니다.

8월 마지막 수요일 민우회 활동가 신기루, 달개비, 바람은 학사지원직 여성노동자분들을 만나러 한양대학교에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왔어요.”라고 말하는 한양대학교 학사지원직 노동조합 지부장님의 인사에 괜히 마음이 뜨끔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바로 ‘우리’ 자신인 것 같아요. 조합원 모두가 똘똘 뭉쳐 이 길을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난 봄날 보송한 모습으로 민우회 상담실을 찾았던 지부장님은 어느새 여름 벌레에 까맣게 그을렸지만 더욱 단단해진 결연함으로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을 뵈 때마다 힘이 나요!”라는 지부장님의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뻔한 말 같아 말하기 쑥스럽지만 조심스럽게 ‘연대, 쏘리다리떼(Solidarite)’라는 말을 되뇌어 봅니다. 차별 없는 대학을 만들기 위한 한양대학교 학사지원직 여성노동자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한국여성민우회가 함께 손을 맞잡고 쏘리다리떼(Solidarite)를 외치면, 별일 없는 세상에서 별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p.s 멋쟁이, 민우회원 여러분 한양대학교 학사지원직 여성노동자를 지지하는 응원메시지를 ‘모람세상(www.womenlink.or.kr/moram)에 남겨주세요! 급게 출력해서 학사지원직 여성노동자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할게요! 아죌!

이소희(바람) ●

한양대학교 학사지원직 여성노동자들의 싸움이 하루 빨리 승리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간절히, 간절히! 간절히바람투쟁!



나는 비밀이 있습니다

선백미록(신기루) ● 민우회 반차별 회원(청춘)팀

4명의 언니들과 함께 한 삶은 꽤 다이나믹했다. 거기에 엄마와 할머니까지 내가 자란 집은 여자가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권력의 분배는 머릿수대로가 아니었다. 그 불평등을 해체하는 힘은 관계능력이었다.

엄마는 타고난 서정성을 바탕으로 본인의 억압을 섬 없는 말로 풀어낼 줄 알았고 할머니는 그것에 공감할 줄 알았다. 김 장사를 나가는 엄마의 뒤를 봐주는 것은 언제나 할머니였고 집안에 둔 자식의 손톱 밑 가시까지 눈여겨 돌볼 줄

아는 것도 할머니였다. 이 연대는 담장을 넘어 옆집 좋아 엄마에게로 향했고 다시 마을 여자들끼리의 계, 마실, 품앗이 등을 통해 화투패를 따라, 입을 따라, 치킨을 따라 확산됐다. 동네 여론을 주도할 줄 아는 그 탁월한 능력은 한동네에서 바람난 전주댁 아저씨를 응징하거나, 혼자 사는데 풍이 와서 고생하는 박실 할머니네 자식들을 규탄하는 데서 진가를 발휘했다.

지금도 우리 자매들은 어떤 사건을 이슈화하고 집안의 문

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듯, 여자들은 ‘힘’이 있다.

누구나 있는 비밀, 왜 비밀이 됐을까?

여성들 간의 관계는 실제로 훨씬 소심하고 유연하고 개별적인 것으로 비쳐진다. 동시에 지나치게 신비화되어 있다. 타자의 인정에 목마르고 주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서로 질투하고 감정적이라든, 여자는,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은 정형화된 틀 안에 안전하게 존재한다. 어떤 여성들은 수용하고 누군가는 저항하며 누군가는 그 틀을 가지고 놀 줄 안다(예, 정이현 소설 ‘낭만적 사랑과 사회’에 나오는 여자들은 순결, 명품, 강남 등의 상징을 지배한다). 이 지난한 상호작용 끝에 각자의 조건과 상황 속에서 다종다양한 비밀이 생긴다. 정상성의 틀로 검열한 결과, 묻어두자. 타자의 시선으로 지배로서의 남성집단이 있는 이분법의 세상에서 9년 만 살고나면, 여성으로서의 비밀이 생긴다. 사랑이든 관계든 지배적 규범이 있는 사회 틀 밖에 있는 이들은 비밀(말 못하는 것, 한)을 주렁주렁 달고 살게 마련.

사랑>고마움>미움>관찮음

올해 진행 중인 반차별 캠페인 ‘여자, 여자 사랑해요!’는 (다소 기름기가 흐르는 슬로건을 갖고 있지만) 비밀엽서 프로젝트로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비밀엽서는 미국의 예술가 프랭크 워렌이 시작해 미국 전역에서 대히트를 쳤고 한국에서는 한겨레와 민우회가(^^) 진행하고 있다. 사람들이 과연 엽서에 비밀을 쓸 수 있을까? 정말 그걸 보낼까? 싶지만, 5, 6월호 [함께가는 여성]의 독자엽서로 배포됐던 엽서들이 먼저 도착했다. 부평 우체국 등의 소인이 찍힌 엽서가 픽 수수하고 예뻐다. 퀴어문화축제때 부스 뒤 구석에서 진행한 엽서쓰기는 대박이었다. 이후 ‘여기에 비밀을 쓰면 마음이 풀려요’가 있는 최신판의 엽서들이 도착했다.

고마운 언니, 미운넌, 참 관찮은 여자, 사랑하는 그녀에 대한 비밀 이야기를 적어달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그녀들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고마운 언니들이 존재감을 더했고, 미운넌은 질투와 섞여 한 자리, 끝으로 참 관찮은 여자들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

사랑을 담은 엽서가 역시 뜨거웠다. “나는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같은 학교를 다니고, 여대랍니다!”, “○○아 사랑해! 엄마 호적파지마여” 등 동성의 파트너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기도 하고 사회를 향해, 이성애자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하지 못한 커밍아웃을 하기도 했다. 이성애가 ‘자연’인 세상에서 살다보니 비이성애는 ‘비밀’이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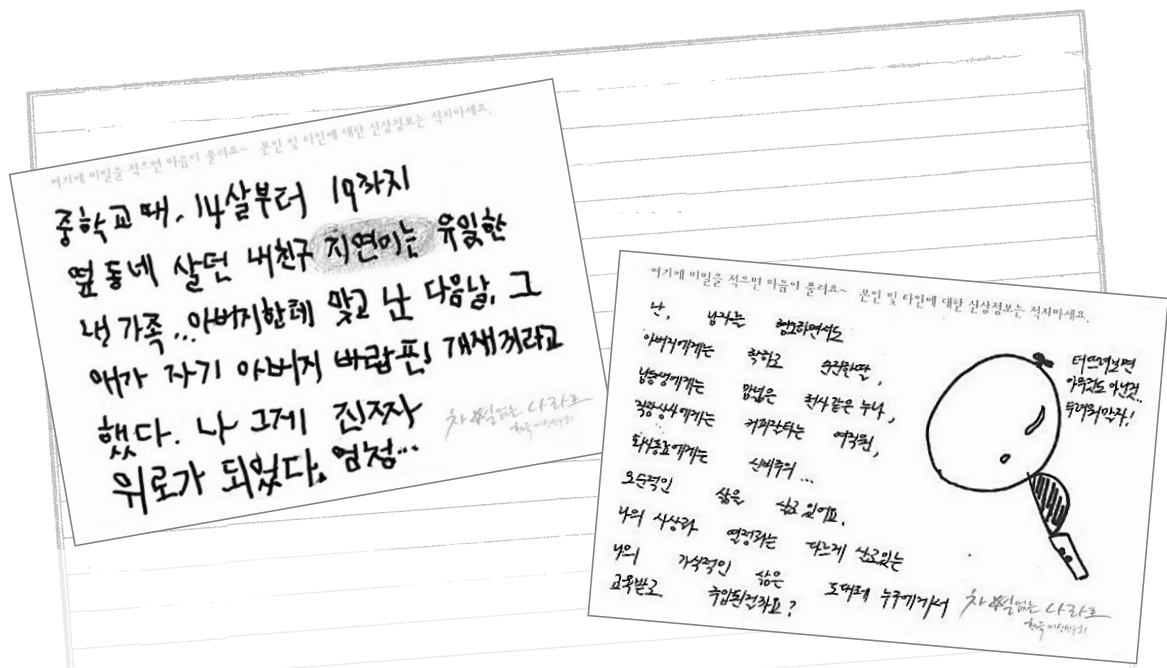
비밀 공유하기는 전해지기 비법 제1장 1조.

“내 친구 ○○은 유일한 내 가족… 아버지한테 맞고 난 다음날 그 애가 자기 아버지를 바람 핀 개새끼라고 했다”
“최고로 개털이었던 시절, 우리 언니가 20만 원을 빌려주었다”

비밀을 공유하거나 같이 저항하면, 특유의 유대감이 생긴다. 영화 ‘가족의 탄생’에서는 미움을 극복한 여자들이 혈연이나 정상이라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가족’이 되는 것을 보여준다. (난 참 정유미 좋아하는데) 문소리와 고두심과 정유미는 서로 위로하지만 감정을 착취하지 않으며 따뜻하지만 자유롭고 독립적이다. 아빠의 폭력을 치유할 힘을 주는 존재였던 누군가, 배고프고 허해 절실했던 순간에 늑대처럼 멋진 여성들이 있었다.

여자끼리의 증오심치료제 여성주의, 말하자! 놀자! 깨자!

여성들의 정치화, 연대는 끊임없이 방해받는다. 내가 좋아서 선택했다고 믿는 것들이 구조에 영향을 받은 것들일 뿐



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존재는 한없이 미약해진다. 목소리에 힘과 자신감이 없어진다. 결국 선택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허용된 판이 좁았다면 그 구조를 흔들어야 할 것이다. 미움과 질투는 창조성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개 혼자라는 좌절감을 주고 그 감정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이들이 있다. 타인의 시선에 맞추어 약자들의 경쟁을 강화하는 것은 정상성의 세계에서 반복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벨 훅스는 본인의 여대와 남녀공학대학의 경험을 비교하면서, 남녀공학에서의 여성들은 시선을 내리깔고 조용히

웃으며 수동적이고 성공을 꿈꾸지 않았다고 했다. 여자들이 끼리의 공간은 그래서 중요하다. 간혹 이 캠페인이 구시대 의 향수를 전한다거나 분리주의로 보인다고도 하는데, ‘여자여서 그래’로 환원시키는 본질주의가 아니다. 여성경험의 발굴을 멈추는 순간 세상은 지나치게 관용적이 되는 것 같다. ‘국가를 뒤흔들 강력한 자매애’가 세상을 변화시켜 왔다면, 그 힘의 원천을 고수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 같다. 그런 의미에서 비밀을 말하고, ‘비밀스럽게’가 아니라 함께 보고 같이 놓고 그러다 보면 결국 나를 억압하는 것들로부터의 해탈이 올 것 같다. **㉠**

선백미록(신기루) ●

고마움, 미움, 관참음, 사랑 무엇이든 적어보고 영혼의 힘을 기르시길.
나는 3장 이상의 비밀을 보냈다. ㅋ.

● 해병대 성폭력 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병대 병사 성폭력 사건 수사,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권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구속되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지요. 이에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군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해병대사령부와 국방부가 사건의 심각성을 숙지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과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를 시도한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8월 4일, 여성미래센터

● 흥미진진 포럼 -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속쟁점포럼



연속되는 3번째 시간, 주제는 차별과 '표현의 자유'의 경계. 점점 세련되어지는 차별전영의 논리에 대응을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적이 정당하다면 내용상 표현의 자유는 제한이 없어야 할까요? 박석진(인권운동사랑방), 장서연(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이쁜이(친구사이) 등이 함께 열린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8월 12일, 민주노총 대회의실

● 정치인 성희롱,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



한나라당 강홍석 의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제명된 사건이 있었지요. 이렇게 정치인의 성희롱이 끊이지 않는 현실의 근본적인 대안과 대응법을 고민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전화 주최, 한나라당을 제외한 각당 여성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미혁 대표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치인의 성희롱 발언, 현황과 대안'이라는 주제발표가 있었고요, 조현옥교수와 여성의원들이 각 당의 현실에 비추어 성희롱 예방에 대한 의견과 고민을 펼쳤습니다.

8월 12일, 여성미래센터

● 힘내라 강물아, 들어라 MB아! 이포보 현장액션

한국여성민우회, 녹색교통, 환경정의, 함께가는시민행동 활동가들이 함께 여



주 이포보에 다녀왔습니다. 작은 정성을 모아 성금도 전달했답니다. 환경연합 활동가 3명이 22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 현장에 가보면 더 잘 느끼게 되는 4대강 공사의 부적절함... 밤에는 촛불집회도 가졌습니다.

8월 12일, 여주 이포보

● 여성주의 인식과 여성주의 리더십 강의



아이쿰생협 조합원 및 활동가, 간부를 대상으로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 대전, 대구, 부산에서 총 5회간 강의를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윤정숙 선생님(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의 '여성주의 인식' 이란 주제에 이어, 양민석 선생님(세종대 교양학부 교수)의 '여성주의 리더십'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강의 후에는 멘토

링 기법을 이용한 워크샵도 진행되었습니다.

8월 17일~31일(총 5회)

● 반노동? 반영성? 재능교육의 노조탄압! 재능교육의 불매운동을 선포한다!



2007년부터 전개해온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의 노숙농성 투쟁이 1000일이 되었습니다. 긴 싸움 끝에 단체협약까지 맺었지만 2008년 11월 일방적 해지, 남성용역강제를 동원한 천막침탈, 강제철거 등 폭력행위, 1인시위 조합원에게 용역강제가 성희롱을 하는 등의 경악스런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여성단체 및 진보정당은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중지를 촉구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전 사회적으로 재능교육 불매운동에 나설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9월 3일, 재능교육 본사 앞

●故최명숙 1주기 추모식, 고인의 유지를 전하다



민우회 전대표 故최명숙님이 우리곁을 떠난지 1년이 되어, 최명숙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같은 시각 고인이 계신 하늘숲추모원에 모여 함께 했던 기억과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故최명숙님의 유족과 민우회는 암으로 투병중인 여성활동가들을 위해 한국여성재단에 '여성활동가 암치료를 위한 최명숙기금'을 전달하여 고인의 유지가 많은 후배들에게 남겨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월 4일, 하늘숲추모원

싱가폴 성폭력 관련기관을 방문하고

조인섭 ● 변호사



법 자체로 보면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에 못지 않으나, 유기적인 연결이나 피해자의 철저한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못미치는 것 같았다.

출발

2010년 8월 23일 쌓여 있는 일거리를 뒤로 하고 싱가포르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아직 30개월밖에 안된 아들에게는 엄마가 왜 4일 동안이나 집에 들어오지 않는지에 대해 ‘엄마가 싱가포르에 가서 싱가폴은 나쁜 사람들을 어떻게 혼내주는지 보고 올게’라는 말로 이해를 시키고, 배우자와 아들의 배웅을 받고 그렇게 비행기에 올라탔다.

내가 싱가포르에 가게 된 것은, 평택 성폭력상담소에서 주관하고 전국성폭력상담소 선생님들이 참석하는 싱가포르 성폭력관련기관 방문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지는 않지만, 변호사로서 한국성폭력위기센터의 이사라는 자격으로 따라가는 것이었다.

험난한 일정과 불타는 학구열

처음부터 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첫날, 싱가포르 직항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3시간가량을 기다려 싱가포르행 비행기로 환승해야 했고,

도착한 뒤 싱가포르이 ‘유스 올림픽’ 개최기간이라 호텔에 자리가 없다고 하여 다시 국경을 넘어 말레이시아로 가서 1박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통상 기관방문이라고 하면 1~2기관을 방문하고 현지 관광을 하곤 하겠지만, 워낙 모든 선생님들이 학구열에 불타고 있었기에, 바로 다음 오후부터 출발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까지 한나절에 1개씩, 총 5개의 기관을 방문했다.

우리가 방문한 기관은 PAVe(Centre for Promoting Alternatives To Violence) - 개인간 폭력(성, 가정폭력 포함)을 막기 위해 통합서비스제공 및 개발하는 기관. PPIS-Jurong Family Service Centre (For info on sexual & domestic violence situation in Malay Community in S'pore) - 가족, 지역사회, 전체 사회 향상을 위해 무슬림여성이 변화하도록 양질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 지식과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기관, TRANS SAFE Centre, TRANS Family Services - 사회문제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

노인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MCYS(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Youth and Sports(지역개발청소년스포츠부) -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보건복지부, AWARE(Association of Women for Action & Research) - 여성단체연합에 해당하는 단체 등 총 다섯 군데였다.

싱가폴은 국가기관이나 단체가 약간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정보를 나눠주지 않는 데, 이렇게 다섯 군데나 접촉하여 만남을 성사시켰으니 주최자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가이드가 칭찬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싱가포르 여러 기관을 방문하며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라고 느낀 것은, 싱가폴은 우선 경찰, 정부, 시민단체의 연결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사건 처리도 유기적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한 사건에 대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회의가 열리고 그 회의에서 이 피해자에 대한 유기적인 처리를 도모한다고 했다. 특이한 것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것뿐만 아

니라 목격자들에 대한 프로그램까지 있었다. 가정폭력이 있었던 경우 그것을 아이가 봤다면, 그 아이에 대한 프로그램까지 진행되고, 가해자가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하면 교도소에서 해당 지역의 기관에 출소하기 전에 출소 사실을 알려줘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다. 그리고 가정폭력의 경우, 접근금지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와 비슷했는데, 우리나라는 최장 접근금지가 1년인데 반하여 싱가폴은 '평생' 접근금지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당한 아이의 진술과 관련하여, '신빙성'이 문제되지 않는 분위기였다.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피해자 진술을 전적으로 믿어주고,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해주는 분위기였다.

법 자체로 보자면 우리나라도 사실 싱가폴에 못지 않고,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더 발전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유기적인 연결이나 피해자의 철저한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못미치는 것 같았다.

맺으며

그렇게 낮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밤에

만 싱가폴 관광을 하며 싱가폴에서의 4일을 보냈다. 싱가폴 플라이어(회전 전망대)를 타고 맨 꼭대기에서는 가족의 행복을 기원했고, 유람선을 타고서는 싱가폴의 눈부신 야경에 감탄했다. 그리고 싱가폴 카지노에 가서 같이 갔던 변호사들과 우리나라 돈 4만원을 땀으며 흥분하기도 했다. 비록 싱가폴의 구석구석을 보거나 통상 패키지로 제공되는 관광지를 가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틈틈이 했던 관광이었기에 더 맛깔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공항에서 같이 여행갔던 선생님들과 헤어지며 내년에도 같이 갈 수 있기를 기원했는데, 내년에는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 계신 분들도 같이 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

조인섭 ●

이혼 및 가사사건과 성폭력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한 지 벌써 7년이 되었네요. 현재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와 많은 인연을 맺고 있고, 민우회의 정책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이야기로 풀어보는 건강보험

‘건강보험 대개혁’을
이해하는 네 가지 이야기

김창보 ●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실장



첫 번째 이야기 :

‘100만원의 개혁’과 ‘11,000원의 기적’

최근에도 건강보험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재정이 적자가 난다고 하지,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올라가는데 오히려 보장수준은 떨어졌다고 하지, MB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고 하지...

그런데 얼마 전부터 뭔가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 위기’와 같은 부정적인 뉴스가 사회적인 관심의 단골메뉴였는데 이것마저 변해가고 있다.

바로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담은 논의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의료비 부담을 1년에 100만원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강보험 체계를 만들자”

는 주장과 함께 “국민 1인당 매월 11,000원만 더 내면 건강보험 보장수준 90%를 만들 수 있다”는 운동도 시작되었다. 이런 주장들은 지금까지 건강보험의 부정적 이미지와는 다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이 뭔가 국민을 위해 더 많은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방향에서의 요구가 담긴 운동으로 변한 것이다.

이와 같은 흐름은 지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며 현실 정책으로 추진되는 성과를 낳은 분위기와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중심으로 한 진보의 정체성 논의가 배경을 이루며 힘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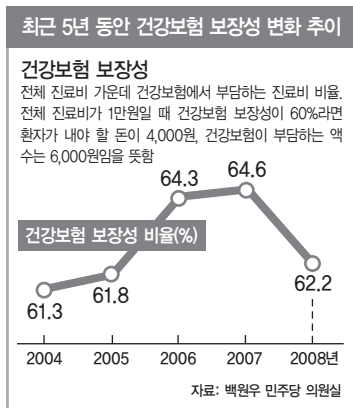
하지만 건강보험에 대한 이런 전망과 기대는 그리 쉽지 않은 앓을 것 같다. 여러 가지 난관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제기되는 ‘100만원의 개혁’과 ‘11,000원의 기적’이 현실성이 떨어진 다소 낭만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국민이 건강보험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으며, 이런 의사를 표현하면서 현실적인 힘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은 무시하기 어렵다. 건강보험 대개혁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 2020년 건강보험 100조원 육박

그렇지만 건강보험이 처한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도, 낭만적이지도 못하다. 건강보험은 바람 앞의 촛불과 같이 위태롭기까지 하다.

작년 우리 국민들이 의료이용을 통해 병원과 약국에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은 모두 약 30조원이었다. 이렇게 건강보



험이 부담한 정도는 전체 의료비의 62%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나머지 38% 정도는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는 미국을 제외한 여러 선진 국가에서 건강보험 보장수준이

80% 이상 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 국민 부담이 두배가량 큰 셈이다. 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을 하나 더 가져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의료비 부담 때문에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목격하고 있다. 그런데도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11~13%씩 늘어나고 있다. 만일 이러한 경향이 계속된다면 2015년에는 건강보험 지출이 50조원이 될 것이며, 지금부터 10년 뒤인 2020년에는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지금보다 세 배가량 더 많아진다는 말이다. 노인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보건 의료서비스의 상업화 경향도 점점 빨라지고 있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 되더라도 건강보험 보장수준은 60% 대여서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100조원에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료비 부담 때문에 가계가 망하고, 치료를 포기하고, 심지어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지속될 것이다.

결국 현실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는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 폭탄'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의료비 부담에 짓눌린 서민의 어두운 선택은 강요되고 말 것이다.

이런 전망은 물론 '현실의 상황이 계속된다면'이란 전제를 달고 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외면하고 싶은 이런 전망을 우리가 바꿀 수도 있다는 말이다. '현실의 상황이 계속되지 않게' 전제를 바꾸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건강보험 대개혁'이다.

세 번째 이야기 : 1995 프랑스 건강보험 개혁

지난 1990년대 후반, 프랑스에 알랭 쥐페 총리가 있었다. 그는 우파 정치인으로 프랑스의 연금 및 건강보험과 관련한 사회보장의 개혁을 추진했다. 그는 당시 4500억 프랑에 이르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모든 소득의 0.5%씩 부담하게 하는 등 부담을 떠넘겼고, 철도·지하철·버스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연금을 개악하는 바람에 한 달에 걸친 전국적 총파업을 불러일으켰던 인물이었다. 당시 그가 추진했던 프랑스 건강보험의 개혁은 수입구조를 대폭 바꾸는 데 목적을 두었다. '임금'에 부과하던 것을

‘임금을 비롯한 모든 수입’으로, ‘보험료’ 중심에서 ‘목적세’로 바뀌었다. 또한 대기업이 실업자와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점에 착목하여 이들의 사회보장을 위한 세금을 부과하여 건강보험 재정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지금 프랑스의 건강보험은 총수입 중에서 건강보험료 40%, 목적세 58%인 구조로 대폭 바뀌었다. 당시 공공부문과 사회복지제도에서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했던 쥐페였지만, 그가 건강보험 분야에서 추진한 건강보험 수입 분야의 개혁은 현재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실업자가 늘어났고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큰 이윤을 남기고 있는 시점에서 대기업에 세금을 부과하였고, 임금이 아닌 전체 소득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부담을 나누어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런 프랑스의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대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단지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수단만으로는 부족함을 말해준다. 사회구조의 변화와 노동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여 사회연대를 실현하고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하면서 건강보험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네 번째 이야기 :

스웨덴 ‘7크로운의 개혁’과 한국 건강보험 대개혁

대표적인 복지국가 스웨덴은 1970년 이른바 ‘7크로운의 개혁’으로부터 의료복지를 위한 개혁이 본격화되었다. 국민 누구나 7크로운만 있으면 필요한 만큼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하는 의료개혁이었다. 스웨덴에서는 이러한 목표에 먼저 사회적인 합의를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병원을 비롯한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스웨덴은 모든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을 이루어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대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건강보험 대개혁의 목표를 국민 누구나 1년에 100만원까지만 의료비 부담을 하는 이른바 ‘100만원의 개혁’으로 두자는 주장이 주목된다.

또한 이와 같은 ‘100만원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정책적 목표에 합의를 이루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 구조를 개혁하자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강보험의 수입을 개혁하여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러한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제’를 도입하고 주치의제를 도입한다면 ‘100만원의 개혁’은 꿈이라고 말할 수 없다.

최근 스웨덴은 GDP의 9% 정도를 의료비로 사용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약 7.5% 수준이다.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부담을 조금만 더 높인다면 우리 국민들도 충분히 스웨덴과 같은 의료복지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런 점에서 ‘100만원의 개혁’이 현실성이 없다는 말은 오히려 맞지 않다. 그 사회의 구성원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시장화된 의료제도의 미국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스웨덴과 같은 의료복지국가를 선택할 것인지, 이제 우리의 선택만이 남았다. **▶**

김창보 ●

보건정책, 특히 건강보험을 전공,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03년 이후 전업적인 시민운동가로 변신하여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 활동하다가

지금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차별금지법’을 제안한다

이숙진 ● 젠더사회연구소 소장

입법 상황? 입법 운동!

최근 주목해야 할 성평등 및 성차별 관련 법률은 크게 3가지 정도인 것 같다. 여성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인 ‘여성정책기본법’, 국회 신낙균의원 대표발의의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인 ‘성평등기본법’, 그리고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등이다.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기본법’은 7월 13일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이며, 국회안인 ‘성평등기본법’은 6월 23일에 발의되었고, 법무부는 차별금지법특별분과위원회를 4월에 구성, 10월에는 대략적인 차별금지법안을 내놓겠다는 일정을 가지고 있다.

법률은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반영할 뿐이며,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성평등 현실은 그만큼 진전되지 못했다는 오랜 경험에도 불구하고, 입법운동을 통한 급진적 미래에의 도전 역시 포기할 수 없는 여성운동의 과제인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요즘의 입법지형에 대한 검토는 여성운동 차원에서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기도 하다.

성평등기본법이 대안인가

지난 7월 15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가부의 ‘여성정책기본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발표했다. 그 이유는 법안 명칭, ‘성평등’의 개념, 여성지위위원회, 유연근무제도의 확산 등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럼 국회안으로 나온 ‘성평등기본법’은 어떠한가. 2009년 6월 15일에 개최된 ‘성평

등기본법’ 입법토론회에서는 “‘여성발전’이나 ‘성평등’이나, ‘성주류화’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느냐, 추진체계로서의 ‘성평등위원회’의 위상은 무엇이나 등”(여성신문, 2009. 6. 19일자)에 대한 의견들이 개진되었으며, 그 후로 약 1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난 6월 23일에 국회안으로서의 ‘성평등기본법’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한 기관은 아직 없는 것 같다. 이 글에서는 ‘성평등기본법’의 세부 조항 하나하나를 따져보기보다 이 법안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 법이 포괄하는 범위가 한국 사회 여성문제 해결을 담보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성평등기본법’의 제안이유에 이러한 구절이 있다.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로 인하여 사라진 성차별의 정의를 시대에 맞게 복원하며, 성평등정의를 도입하면서 모든 영역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고 구제조치를 강화하여...” 이 구절은 ‘성평등기본법’을 통해 ‘남녀차별금지법’을 대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이 읽혀진다. 그렇다면 과연 ‘성평등기본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결론만 얘기하자면 아주 턱없이 부족하다. ‘성차별’과 관련하여 ‘성평등기본법’의 규정은 전부 10개 조항에 그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성차별’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성차별의 유형, 성차별금지의 범위, 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손해배상, 입증책임, 그리고 벌칙 등의 내용을 담아낼 수 없다. 즉 별도의 독립된 개별법으로 다루어질만

한 내용들이 ‘성평등기본법’의 제3장 제1절에 부분적으로 반영되면서 폐지된 남녀차별금지법의 복원을 얘기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성평등기본법’이 포괄하고 있는 성평등 및 성차별의 범위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다. ‘성평등’과 ‘성차별금지’는 문자 그대로 ‘모든 영역’ 혹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성평등기본법’은 “(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교육, 여타의 공공기관, 대중매체 그리고 점차 증대하고 있으며 매우 심각한 사안이기도 한 사인간의 성차별문제는 ‘성평등기본법’의 대상이 되는가 아닌가. 교육 혹은 재화와 서비스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이 법에 근거한 금지의 대상인가 아닌가. 성적지향이나 성적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편견과 부당한 대우는 ‘성평등기본법’의 대상인가 아닌가. 이러한 문제들을 충실히 답할 수 없다면 ‘성평등기본법’은 제3장 제1절을 통해 ‘남녀차별금지법’을 복원하겠다는 목표를 버려야 하며, 오히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책무를 강화하는 법률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성차별금지가 해결될 수 있는가

남녀차별금지법은 복원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성평등과 성차별금지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인가. 앞서 지적했듯이 지난 제17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자동폐기된 이후 최근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움직임을 가시화했다. 새롭게 제시될 ‘차별금지법

(안)’이 내용적으로 보다 진전된 것일 거라는 기대(?)를 해 보기로 하자. 여하튼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별도의 성별에 근거한 차별금지법 즉 성별에 근거한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은 불필요한가.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는 크게 두 가지로 가능할 것이다. 하나는 성차별 금지의 실효성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 사회 성차별 현실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부분이다. 먼저, 성차별금지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차별금지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성차별을 금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대한 기본법적인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므로 법률구조상 각각의 차별금지 사유에 대해 세세하게 규정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성별에 근거한 차별’을 별도의 장을 통해 그 차별의 형태, 영역, 범위, 그리고 금지하는 차별행위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담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성별과 관련된 다양하고 복잡한 차별의 현실을 차별금지법을 통해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은 성차별을 별도의 법을 통해 금지할 만큼 한국사회의 성차별이 심각한가에 대한 문제제기일 것이다. 혹자는 우리사회의 성평등이 상당히 진전(적어도 법률상으로도) 되었고, 따라서 성차별 금지를 위한 별도의 법 제정요구는 그리 높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젠더개발지수(GDI)나 젠더권한척도(GEM)에서 우리의 성평등 수준은 익히 알려져 있으며, 최근 세계경제포럼의 성별격차보고서에 의한 2009년 우리의 성평등 현실은 세계 115위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국과 호주 등 우리보다 여성 지위가 진전된 나라들에서도 성차별금지법(Sex Discrimination Act)을 제정해놓고 있으며, EU는 2002년, 2004년에 각각 남녀평등대우에 관한 2개의 지침(고용/재화·용역)을 제정해서 회원국들이 이 지침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기도 하

2009 글로벌 성(性) 격차 보고서

스위스 소재 세계경제포럼(WEF) 발표

Country	2009 Rank	2008 Rank	2007 Rank	2006 Rank
Iceland	1	4	4	4
Finland	2	2	3	3
Norway	3	1	2	2
Sweden	4	3	1	1
New Zealand	5	5	5	7
South Africa	6	22	20	18
Denmark	7	7	8	8
Ireland	8	8	9	10
Philippines	9	6	6	6
Jordan	113	104	104	93
India	114	113	114	98
Korea, Rep.	115	108	97	92
Bahrain	116	121	115	102
Algeria	117	111	108	97

다. 즉 우리보다 성평등이 진전된 국가들에서도 성차별금지법은 법제도를 통해 유지되고 있으며, 한국은 여전히 혹은 지속적으로 성차별 개선이 필요한 국가라는 점이다.

차별금지법과 성차별금지법의 관계는 무엇인가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인권위의 차별조사와 피해구제가 인권위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만 만약 차별사건이 법정으로 갈 경우 인권위법의 위반을 근거로 사법적 판단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인권위법은 인권법이기도 하지만 '인권위'라는 기관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기구법적 성격을 보다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사유(인권위법상 19개 사유)에 대해 각각 개별법을 제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차별에 대한 기본법을 통해 이를 금지하자는 것이 제정 취지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전제하고도, 별도의 성차

별금지법이 필요한가. 필자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앞서 기술한 여러 이유들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차별금지관련 법제상의 일관성과도 관련된다. 이미 우리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복지부 소관)과 '연령차별금지법(노동부 소관)'이 있다. 그러나 성별에 근거한 차별금지법은 없다. 차별금지관련 입법의 통상적 선례들은 성차별, 장애차별, 인종차별, 연령차별 등이며 이러한 속인적 성격을 지닌 차별사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별도의 성차별금지법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성차별 사건의 경우 피해구제의 경로가 최종적으로 법원까지 가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을 위한 별도의 근거법이 있을 경우 성차별 금지는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갈 길을 정하자

평등을 주장하는 것과 차별을 금지하자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평등'은 진취적이고 평화로운 행진으로 느껴지지만 '차별'은 왠지 불편하고 투쟁적인 싸움으로 느껴진다는 점이다. 그런데 '차별'을 직시하고 '차별'을 드러내지 않고 '평등'으로 갈 수 있을까? 최근의 입법지형과 관련하여 우리가 갈 길은 무엇일까?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은 병합심사를 통해 국회 단일안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성평등기본법'의 "제3장 1절 성차별 금지" 부분은 별도의 '성차별금지법'으로 가져갈 것을 제안한다. ^①

이숙진 ●

여성학을 전공하고, 젠더관점에 기반한 사회정책 생산현장에서 일했으며, 최근 인권과 차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leesjdream@hanmail.net

게스트하우스는 “비어 있는 집, 빈집입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누구든 맞아들일 수 있고, 또 무엇이든 채울 수 있습니다. 빈집은 이름마저도 비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빈집에 있는 소개글입니다>

함.께.독립하기. 해방촌 게스트하우스 빈집

살구 ●

해방촌 게스트하우스 빈집은 하나의 지향이나 원칙을 따르는 집단이 아닙니다. 손님과 주인의 구분도 없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고민하고 다른 이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빈집에 살고 있는 장기투숙객, 단기투숙객 뿐 아니라 살지는 않지만 왕래하는 모든 이들까지, 빈집은 그들의 수만큼 다양합니다.

빈집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보통 ‘독립’ 한다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을 의미하지요. 보호자와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에 살게 되는 것을, 그 보호자로부터 물질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과 다른 공간에 살게 되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나 용돈을 받지 않게 되거나 또는 결혼하거나!

하지만 저는 독립이란 온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내어주는 공간과 돈이 없더라도 내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데 무작정 다른 이에게 의지하지 않는 사람. 하나 덧붙인다면 돈에서 자유로운 생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필요를 해결하지 않으려면 여러 사람의 다양한 재능들이 만나고 겹쳐야 합니다. 빈집은 제가 함께 독립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함께 독립하고 싶다고 꼭 같이 살아야 하는 걸까요? 혼자 살면서 사생활도 유지하면서 친구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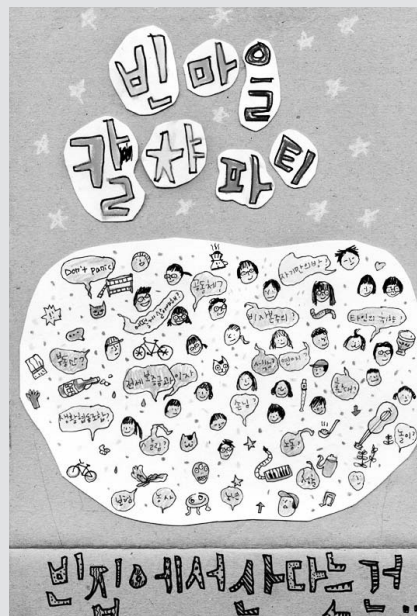
많이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자신만을 위해 분리된 공간에 있다는 것이 다른 이들에 대한 폐쇄성을 반영하고 있고, 또 다시 자기 스스로를 가둔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기만의 공간에 갇힐 것인가, 나의 공간을 열어 우리의 공간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보다 심심하다, 누구랑 놀까라는 생각을 더 자주합니다. 쉬고 싶을 때도 혼자 있어야만 그럴 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도 혼자서 독립(분리)된 공간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고, 저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번꼴이거나 더 적습니다. 그럴 때 빈집의 '손님방'이라는 빈 공간이 저에게 혼자만의 공간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또 혼자 있다는 의미는 단지 '달한 공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집 근처의 공원이나 남산 산책로는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 공간이지만 저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해줍니다.

이렇게 보면 자기 집이라는 공간을 근사하게 하는 것이 독립하여 자기 공간을 운영하는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즐겁고 휴식이 될 만큼 집 밖의 공간들도 근사해 지는 것이 나와 우리에게 훨씬 좋습니다. 내 공간을 열어 많은 이의 공간이 되게 하고 밖이라는 공간을 내 안에 끌어들이는 것... 집과 마을에 대한 고민입니다.

가족이랑도 함께 살기 힘든데 어떻게 낯선 사람들과 같이 사느냐고요? 빈 집은 만날법한 어떤 인연도 없는 사람끼리도 만나게 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대하는 순간 당황스러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생각엔 필요 없는 커다란 물건을 누군가 갖다 두었거나, 러니(빈집생활 2년 3개월 넘긴 고양이)를 처음 봤던 순간이라든가, '이런 일 나는 못하지.' 하는 태도의 사람이라든가.

어떤 관계이든 내가 아닌 다른 존재는 '나와 어떻게 관계 맺느냐'가 중요해집니다. 내 물건인 것을 다른 이가 사용할 때의 관계와 내가 다른 이의 물건을 대하는 관계, 내가 복돌이(개)와 맺는 관계, 러니, 멍니, 동글이(고양이들)와 맺는 관계, 그리고 조금은 익숙해진 그와 이제 첫인사를 나눈 그녀. 모든 관계에 있어 상대와 나의 유사함이나 차이를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와 다른 존재들이고 나와 같을 수 없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만나야





합니다. 온전히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빈집을 짐작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까하여 몇 가지 대화를 옮겨보겠습니다. 올해 정규직 일을 그만둘까 했던 친구와 그만둔 친구가 있는 자리의 대화입니다.

“아직도 출근 하는 거야?” “뭐 정리는 잘 하고 나와야...” “에~ 먼저 관둔다고 노래를 하더니 그레가지고 그만두겠어?”, “사람이 점점 피폐해지네, 어여 그만두시게나. 뭐 좋은 꼴을 보겠다고...”

지금처럼 고실업이 심각하다고 외치는 사회에서 재미있는 일을 구상하고 실행할 시간이 넉넉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래야 훨씬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정규직보다 백수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게 일하고 적게 벌고 적게 쓰고 싶으니, 이런 대화 끝에 함께 일하고 수익을 나누는 가게를 하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나는 (살림을) 많이 하는 거 같고 ○○는 덜 하는 거 같고 이런 느낌이 들까?” “그거야 그 사람 일하는 거 니가 다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한진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더하는 거 같다고 느낄 때가 비슷하게 하는 수준일걸?” “살림할 때 싫증나거나 짜증나기 전에 스톱하자고, 그런 타이밍이 되면 다른 사람하고 바톤 터치하고” “이 공간에서 여성인 ○○가 더 일을 많이 하는 모습이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 오히려 남성인 내가 좀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해.”

함께 살기 때문에 살림은 빈집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야기꺼리이기도 합니다. 살림을 잘 하거나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보다도 능력을 인정받기도 합니다.

빈집은 그 많은 관계와 수다 속에서 나온 것들을 같이 하고, 나누고, 퍼뜨리고 싶어 합니다. 함께 할 때 더욱 진하고 걸쭉한 행복을 맛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빈집을 설명해보려 했지만 역시나 역부족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빈집에 놀러오세요. 놀러 오셔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언제나 놀러오세요.” 

살구 ●

8월 말, 마치 여름의 시작처럼 비가 계속 내리는 일주일.
그 비로 무성해진 옥상텃밭과 날이 밝으니 느긋하게 늘어지는 고양이 3마리가 있고,
학교 갈 준비를 하거나, 옥상 밭을 정리하거나, 아침담배를 피우거나, 식사하고 설거지를 하거나,
아직 자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빈집의 거실에서 살구가 씩니다.

[기획

거울 鏡; 비춰보기

내가 너를 보고, 네가 나를 보고,
다시 내가 나를 보면...

우리들의 성장거울; 유쾌하게 비춰보기

하나, 평소엔 멋있고 정의로운 척 하던 누군가~ 헉! 저런
면 너무 아니잖아? 물론 말과 행동의 일치가 정말 어렵긴
하지. 약간 작아지는 나^^

둘, 타인의 거울에 비춰진 나. 그놈의 무순주의자, 무엇을
지향한다고 해놓은 터라 남들에게 어찌 비춰질지 의식하
며 그닥 자유롭지 못한 행동, 생활들... 나도 모르게 의식
하는 그런 시선들...

셋, 매일 보아오던 거울 속의 잔상을 떠올리며 나 스스로
비춰보기. 내안의 모순적인 면 조심스럽게 살짝 꺼내보기.
그러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



겨물은 개가 ✨ 똥물은 개 나무라기

당신을 보는 나의 시선과 태도

이인화(이오) ●

맘보 : 공적으로 괜찮은 주위 사람이 사생활에서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태도의 선택지는 뭘까?

잡보 : 그 사람이 자신에게 어떤 대상인가, 또 어떤 사생활이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그냥 떼면 떼면한 사이, 혹은 그 사생활이 공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모르겠지 만,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태도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맘보 :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여자 친구가 이직해서 사무실을 떠나자마자 여자동료들에게 ‘추파’를 던져서 공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남자도 평소에 동료들 사이에선 ‘정의파’로 인정받았거든. 회사의 윗선이나 상사와 합리적인 협상을 곧잘 해서 동료들의 신임을 얻었고, 비단 이 사람 뿐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볼 때 “그/그녀는 이리이러한 사람” 식으로 좀 선부른 판단을 해왔다는 생각이 들어.

잡보 : 결국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말이겠지. 그 사람에게도 여러 얼굴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타인을 어떻

게 알겠어. 고정불변의 정체성을 지닌 인간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대체로’ 어떠한 사람이란 정도는 합의가능하지 않나 싶어. 물론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속한 현실의 상황이 간단치 않은 이유로 인해 그 ‘대체로’라는 판단 속에 많은 요소들이 고려되지 못하는 위험이 있겠지만.

맘보 : ‘...인 척’, ‘...한 척’ 하는 인간형이 더 나쁘다는 생각이 갈수록 더해. 대놓고 나랑 반대 입장이거나 적대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조심할 수 있지만, 믿었다가 뒤통수 맞으면 상처가 너무 크잖아. 양식 있고 신사적인 듯 보이던 사람이 나와 동료의 인사문제에 뒤에서 매우 부정적인 말들을 흘리고 다녔다는 얘길 전해 듣고는 차라리 ‘대놓고 마초’가 낫다는 생각이 들었었지.

잡보 : 글쎄, ‘척’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사람 자신도 스스로에 대해 잘 모를 수 있겠지.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뭐 이런 거?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믿었던 사람에게 작정하고 상처를 준다거나 뒤통수를 친다기보다 자기가 하는 행위의 의미를 아예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맘보 : “오직 위선자만이 내부의 핵심까지 속속들이 악한 존재”라는 말을 누가 했다던데, 그렇다면 이건 아예 자기가 위선자인 줄도 모른다는 얘기잖아? 불교에서는 삼독심(탐욕, 분노, 어리석음) 가운데 어리석음이 탐욕과 분노의 근원이라고 하던데 자기가 하는 행위의 의미 자체를 모른다는 건 어리석음의 극치가 아닐까?

잡보 :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논리정연하게 입바른 말 잘하고 사회의식 뚜렷한 사람이 시험볼 때 컨닝을 환상

적으로 잘하는 걸 목격하고 정떨어졌거든. 근데 그 사람 자신은 너무 떳떳하니까 막 혼란이 오더라고. 이 말 하나까 누가 나더러 “이제부터 넌 올바른 말 한 마디라도 떠들면 안 된다. 누군가가 네 행동을 지켜보다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당장” 이중적이고 언행 일치 안 되는 사람”으로 비난할 수 있다”고 그러데.

맘보 : 아니지! 자기이익을 위해 작심하고 부도덕한 짓을 하는 것과, 어쩌다 실수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건 다르잖아. 또 부도덕한 행위에도 경중은 따져야지!

잡보 :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운동을 하거나 자기가 서있는 곳에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씌워지는 외부의 도덕적 잣대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도 들어.

맘보 : 기대가 크면 요구나 비난도 큰 법인가? 누군가는 “성인군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요구하는 그만큼의 윤리기준은 스스로 지키면서 사회운동해야 한다”고 그러더라.

잡보 : 그 선에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하지만 대중의 감정은 그 선에서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 같아.

맘보 : A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B와 C도 완벽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

잡보 : 예를 들면, 비정규직 관련 프로그램을 보던 한 시청자가 “자기네 방송사 비정규직문제나 해결해놓고 저



그럼 자기정직성에 자신 없는 나는
이렇게 타협해 볼까.

“겨물은 개는 똥물은 개를
나무랄 자격이 있다”

런 방송하지” 그랬다 쳐, 그 사람 논리라면, 내부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방송은 공공을 위한 그 어떤 프로그램도 제작할 수 없는 거야. 언젠가 ‘문제’ 청소년을 연구하는 지인의 아들이 가출을 한 적이 있는데, 친구가 그러더라. “청소년연구하기 전에 네 아들문제부터 해결하지”

맘보 :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그 어떤 문제에도 안 걸릴 사람이 어딴어?

잠보 :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나 나나 다 똑같다”고 나가면 그것도 좀 위험해. 누군가의 어떤 말과 행위를 비판할 때, 그 사안에 관한 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자기정직성을 갖추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건 필요하겠지.

맘보 : 자기정직성? 남들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알고 있는 어떤 것... 하지만 그조차 없는 사람들이 와글와글 떠드는 게 현실이고, 난 이게 어떤 경우엔 꼭 나쁘지 않다고 봐. 세상이 조금씩이라도 변화해온 게 이런 사람들 ‘떼창’ (떼지어 소리치름)덕도 분명 있고.

잠보 : 물론 그런 면이 상당부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삶의 질적인 향상을 이루기 힘들다고 봐. 비난하던 사람들을 비난받던 그 ‘위치’에 옮겨 놓으면 똑같아져 버리는 일도 많을 테니까. 이런 뜻에서 자기정직성이 중요하다고 한 거야.

맘보 : 그럼 자기정직성에 자신 없는 나는 이렇게 타협해 볼까. “겨물은 개는 똥물은 개를 나무랄 자격이 있다”

잠보 : 거기에 꼬리하나 달자. “물은 겨를 털어내는 남하, 나무랄 자격 쟁드셈”

맘보 : 겨가 덕지덕지 물은 내겐 너무 무리한 요구~

잠보 : 나무라지만 말고 똥도 함께 치우자고 할랬더니! **암**

이인화(이오) ●

맘보, 잠보(mumbo-jumbo)는? 헛소리, 객쩍은 이야기입니다.

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특정 사실을 이유로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며 꼬리표를 다는 일이 종종 있다. 하지만 수궁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을뿐더러 한번 붙은 꼬리표는 쉽사리 떼지 못하기에 꽤 오랫동안 당사자를 괴롭히기도 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붙어 다니면서 스스로를 옥죄는 꼬리표, 가던 길 멈춰서 잠깐 뒤돌아보자, 내 뒤엔 몇 개나 들러붙어 있는지...

꼬리표 하나 '전직 환경단체 활동가'

테이크아웃 커피점에서 개인컵을 꺼내는 나를 보고 룸메이트 친구가 했던 말. “전직 환경단체 활동가다운데!?” 장난 섞인 친구의 말에 피식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들었던 것 같다. 한 번은 연일 뉴스를 달구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날선 공방 가운데, 두 번째는 가방에 넣어 다니던 휴대용재떨이에 대한 훈훈한 대화 속에서, 그리고 몇 차례 더... 당시엔 알아채지 못했지만 룸메이트는 종종 내가 전직 환경단체 활동가였다는 점을 상기시켜주었다.

자극히 평범한 나의 일상을 두고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룸메이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예전에 환경단체에서 일했었는데 지금은...”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나를 보면 아직 ‘환경단체 활동가’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같다. 분명 나의 삶 가운데 한 부분이고 지금도 여전히 관심 가는 주제이긴 하지만 현재의 나를 ‘전직 환경단체 활동가’라고 소개할 순 없지 않은가.

꼬리표 붙이는 사회

살림 •

그렇게 룸메이트가 달아준 ‘전직 환경단체 활동가’라는 꼬리표를 쉽사리 떼어내지 못하고 있다. 자판기에서 일회용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마시면서,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쓰레기봉투를 집 앞에 내놓으면서, 소음이 심하다는 핑계를 대며 멀쩡한 노트북을 두고 새것을 장만하면서... 나를 아는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슬며시 걱정이 된다. 그래도 한때 환경단체 활동가였는데 그에 걸맞는 행동이 아니라는 생각에 자책까지 하면서 말이다. 이렇게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면서부터 스스로에게 ‘전직 환경단체

활동가'라는 사회적 자아를 강요한다. 어쩌면 '진직 환경단체 활동가'라는 꼬리표는 내가 달아놓은 것 아닐까.

꼬리표 둘 '기호 8번'

그 룸메이트와 함께 살던 석 달 가운데 6.2지방선거도 끼어 있었다. 대구가 고향이고 조선일보를 즐겨보던 친구는 투표 날이 임박한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에게 손가락 세 개를 펼쳐보였다. 현직 시장이 출마한 1번을 버리고 3번을 선택하게 된 고심의 과정을 상세히 털어 놓았다. 그리고 나의 대답을 기다리듯 나를 뻔히 쳐다봤다. 같은 대구에서 자랐지만 대학 와서부터 정치 지향점이 서로 틀어진 내가 이번엔 과연 몇 번을 찍을까 사뭇 궁금했나보다. 선거가 끝난 뒤 나에게는 '기호8번'이라는 꼬리표가 추가됐다.

전직 환경단체 활동가라는 꼬리표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다. 사실 '전직인데 뭐 어때?'라며 슬쩍 빠져나갈 구멍도 있고 그래도 고생했구나 하는 연민이라도 받으니까. 하지만 정치 지향은 얘기가 좀 다르다. 얼굴빛이 달라지고 억양이 높아지고 날을 세운 대화가 오간다. 특히 선거 같은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땐 더 그렇다. 어쩌면 선거는 개인의 정치적 지향을 단숨에 숫자 하나로 뽑아내버리는 바코드 인식기계 같다는 생각도 든다. 너는 도대체 몇 번이냐, 나와 같은 번호냐, 5번을 찍다니 너는 어쩔 그릴 수가 있느냐, 8번 찍은 걸 보니 너는 그렇고 그렇구나... 선거가 무르익는 동안 주변의 시선은 끊임없이 한 개인에게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밝히기를 강요한다. 강탈하다시피 빼앗은 그의 선택을 놓고 한 개인을 규정하고 판단한다. 2002년 대선 뒤 같은 고향 친구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1번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신자'라는 누명을 덮어 쓴 뒤 어거지로 술값을 냈던 씁쓸한 기억처럼 적외선 레이저 같은 사회적 시선 앞

에 4,800만 국민은 '빡' 소리와 함께 숫자 하나를 토해내고 선거결과 책임론이라는 계산대 앞에서 자신이 발설한 그 숫자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아닌지...

선거 때마다 뒷번호만 골라 찍고, 무노조 악덕 대기업에 반대하며 국가나 국익이라는 말을 소름 돋듯 싫어하지만 나도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내가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의 광팬이라는 점이다.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증여에 화가 나고,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에 불매운동으로 동참할 수는 있지만, 삼성라이온즈의 야구경기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어쩔 그릴 수가', '거봐 너도 어쩔 수 없다니까' 혹은 '동지를 배반하고 자본의 노예가 되다니!' (여기저기서 원성이 들려오는 것만 같다.) 대기업과 자본의 횡포에 반대하는 나의 주장에 논리적 허점이 생기는 것 같아 꽤 오랫동안 숨겨왔다. 일전에 처음으로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내가 삼성라이온즈의 팬이 된 것은 마치 모태신앙 같은 것이라 어쩔 수 없었다. 스포츠는 스포츠일 뿐이지 않느냐며 둘러댔다. 정치적 지향이 개인적 취향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꼬리표 셋 '채식주의자'

재작년부터 채식을 시작했다. 채식을 하는 2년 반 동안 수없이 많은 식사 약속과 회식이 있었으며 그 가운데 꽤 많은 자리에서는 채식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했다. 적절한 무관심과 작은 배려로 편하게 대해주는 센스 넘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개는 채식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다면 신기하게 보는 사람부터 궁금했던 것들을 잔뜩 물어보면서 질문 공세를 퍼붓는 사람, 채식으로 인한 위험성과 채식의 논리적 허점에 대해 열띤 주장을 펴는 사람들까지 다양



한 반응을 마주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기준에 인식하고 있던 채식주의자의 전형과 나를 비교하면서 충고까지 잊지 않는다. 그렇게 강렬한, 하지만 짧은 대화가 지난 뒤 내가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경악한다. 채식주의자인데 어떻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느냐고!

‘주의자’라는 말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시선은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대개 평균에서 이탈한 사람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채식주의자에 대해서는 별난 사람,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많이 받는다. 얼마 전 개봉한 영화 〈채식주의자〉에서 채식을 선언한 주인공에 대한 묘사는 지나치게 예민하고 기이하여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을 연상시킨다. ‘주의자’로 살아가는 데에는 사회의 시선을 감내해야 하는 몫까지 함께 떠안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 ‘주의자’라고 하면 특정 가치만을 열렬하게 추구하며 원칙을 중시한다고 생각해 다양한 스펙트럼이나 예외 상황을 허용하지 못한다. 사실 채식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다양한 이유가 있으며 그 방법도 여러 가지이다. 요새는 웰빙 붐이 일면서 채식이 많이

알려진 탓에 담배피우는 채식주의자를 만나면 당황하는 것 같다. 환경문제나 종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말이다.

꼬리표를 어떻게 할까?

살다보면 이렇게 꼬리표 몇 개쯤은 달고 다니는 게 아닌가 싶다.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것도 있고, 억울하게 덮어 쓴 것도 있고, 사실이지만 인정하기 싫은 것도 있을 테고 말이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남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스스로 더 불행해질 뿐이다. 또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에만 늘 얽매어 있는 사람은 남의 시선의 노예일 뿐이다. 노예는 늘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주인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한다. 난니 모레티 감독의 영화 〈아들의 방〉에서 주인공 ‘조반니’는 정신과 의사로서의 사회적 페르소나*에 얽매어 아들의 죽음을 맞이한다. 사회적 지위와 그에 걸맞는 품위, 성격 등을 유지하기 위해 쏟았던 열정을 스스로에게는 한 번도 보이지 못한 주인공 조반니는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뒤늦게 자신의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삶으로 돌아선다. 영화에서처럼 강요받은 사회적 자아를 내려놓으면 그동안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개인적 자아가 드러난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신경쓰다보면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못하게 되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게 된다. 남이 달아 놓은 꼬리표는 이제 떼어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보면 어떨까. **앎**

살림 ● 떼고 싶은 꼬리표도 있지만 갖고 싶은 꼬리표도 많다는...

* 페르소나 : 심리학 용어로서 타인에게 비치는 외적 성격을 나타낸다. 원래는 그리스의 고대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일컫는 말이었다.

내가 나를 비추는, 거울을 보기 위한 준비들 ✨

윤영 • ✨

내가 나를 보면서 내게 중요한 가치와 일상의 모순을 느끼는 것, 마주하기 싫은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 내가 얼마나 진보적인지, 여성주의적인지, 정치적으로 올바른지, 어떤 성향 또는 정치적 규준에 부합하는 인간인지, 정밀하게 스스로를 살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다. 여성주의자임 또는 환경론자임이 직업선택이나 활동과 연결된 경우에는 ‘자, 네 갈등의 역사를 읊으며 고해성사라도 한번 해 보렴’이라고 요구했을 때 과연 어떤 얘기를 할지…

이런 가정을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정말 잘 모르겠고 궁금해서다. 어떤 기준들을 갖대로 스스로를 거울 앞에

서 들여다 본적도 없거니와, 딱히 크게 갈등이나 모순이라 할 만한 걸 느껴본 적이 없어서다. 왜 그럴까? 뭐 일단은, 아예 뭘 모르거나 뻔뻔하면 갈등이나 모순을 느끼지 못한다. 정치적 진보성이 일상의 가부장성과 맞물리는 상황을 모순이라 느끼지 못했던 많은 선배들의 모습은 과거의 고루한 예고, 녹색과 삼질이 따로 노는 상황에 별 모순을 못 느끼며 대충 봉합해버리는 그분과 친구들의 모습은 최근의 암울하면서도 혼해빠진 예라 하겠다. 그런 이들은 갈등도 고민도 없는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부럽기도 하다.

난 그 정도로 행복한 날들을 보내지는 않는다. 여성주의를 기준으로 삼자면, 물론 약간의 갈등은 있으면서도,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뭘 좀 알더라도 어설피니 오히려 갈등이 덜하다. 그러니까 발을 적당히 담그고 있으면 안전하다. 물론 ‘여성주의의 언저리에 있는 남성’ (불편하고 부정확한 표현이라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할 길이 없다)이라는, 상당히 간편하고 애매한 포지션에 스스로를 고정시켰을 때 가능한 얘기다. 군사용어의 비유를 싫어한다면 미안하지만, 최전방에서 진두지휘하고 싸우는 건 언니들이니 나는 후방에서 소박하게 지원사격을 하는 걸로 만족하면 된다(그리고 그 정도만 해도 언니들은 예뻐해 준다). 이는 일상을 파고드는 여성주의의 날카로운 ‘시선’에 노출되고 움아매이는 일을 애초에 피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게다가 딱히 여성주의자도 아니고 그렇게 될 껍냥도 없는 자라면 이런 식의 주제파악은 중요하고 민폐를 덜 끼치는 일이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걸 아는 눈치와 처신.

이런 식으로 자꾸 위치잡기를 하는 건 자기합리화의 근거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다. 방어선 없이 거울부터 들이대고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건 좀 두려운 일이니까. 실상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준 이념이나 가치는 때로 부메랑처럼 날아와 족쇄가 되는 경우가 있다. 여성주의의 이런저런 수혜를 받은 만큼, 옹당 가져야 할 태도와 언어에 벗어나고 있는 점은 없을까? 그나마 체득한 것들이 일상의 어떤 순간들에서는 빠걱거리지는 않나? 여성주의라는 깊은 이름과 나의 일상적 폭력성과 찌질한 행태들이 공존하거나 따로 노는 게 느껴질 때의 웬지 모를 낯부끄러움, 알 만한 사람들이 옹당 기대할 그럴듯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애를 쓰거나 낮간지러운 포장을 하는데 대한 피곤함.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하지? 라는 질문들을, 자주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분기에 한번 정도는 던지며 모니터링도 해야 하고, 뭔가 어긋나는 것 같거나 지적을 받으면 또 합리화와 변명의 언어들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각자의 위치가 어떻든, 스스로를 특정한 기준에 두고 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느냐, 앞뒤가 안맞느냐 질책하는 건 좀 미련한 일이다. 아프기만 하고 명쾌한 답이 나올 리가 없다. 이를테면 내가 속한 연애관계의 행태에 내가 수혜 받은 여성주의의 가치가 매끄럽게 접목되지 않는다고 딱히 괴로워 해봤자 정확한 답이 나오던가. 또는 성별화 된 남성이기를 요구하는 상대와 화목한 연애생활을 위해서는 가끔 수컷 흉내도 좀 내주마, 여유도 부리는 일이 스스로의 가치에 위배될 만큼 불편한 족쇄일까. 가치와 개인의 성별화 된 역사와 정체감과 현실이 맞물려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디 그리 일률적이고 단순하겠나. 가치의 전제들은 단순히(고 또 중요하)지만 현실의 맥락들은 좀 더 복잡하다. 덧 붙이자면, '우리' 대부분의 공적언어는 사적언어와 그다지 따로 노는 경우가 없다. 그걸 억지로 분류해야 하는 부류와 직업군은 극소수다. 시험에 들어야 할 일이 많지 않다는 애

기다. 예컨대 '우리' 예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고 자연스레 기준을 정하는 게 가능한 "공정한 사회"라는 초등생 수준의 표현이, '저들' 예겐 뭔가 치밀한 개념과 논의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사안이 되는걸 보라. 그들처럼 생똥맞은 개그를 하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다면 크게 고민 하거나 괴로워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뭣보다, 모순을 잘 끌어안고 버티는 것도 나쁘지 않고 즐길 만하다. 내가 나를 들여다보면서 불편함이나 이율배반을 느끼고 헤매는 건 결국 답 또는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고, 내공을 쌓으며 성장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여성주의자가 풀어낸 어릴 적 경험이 기억난다. 그녀는 '나는 왜 외 모지상주의를 공공연하게 전파하는 연예프로를 낚 놓고 보며 수다를 떨고 즐거워하는 걸까, 나는 여성주의자가 될 자격이 없나봐' 라는 "엉뚱한 갈등을 겪는 경험"을 하면서 차츰 성장하는 과정을 겪었다고 말한다. 이런 단순하고 단 선적인 갈등부터 그대로 싸안고 풀어가는 게 크게는 공통의 가치지향을 가진 커뮤니티의 기본적인 룰을 유지하는 데, 작게는 성찰능력을 유지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게 옛날 말로 무슨 '강철 사회주의자' 마냥, 되도 않을 기준을 정해놓고 되도 않을 '척'을 하면서 결국 자기합리화도 아닌 자기기만을 하게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러니 진정성과 최소한의 성찰능력이 있다면 뭔가 앞뒤가 안맞는다고 괴리감을 느끼는 건 덜 해도 된다. 자... 이제 뭐 이만하면 거울을 가지고 와도 좀 안전할 것 같다. 당신이 이 모든 게 결국 자기합리화를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느낀다면, 당신의 잣대에 걸리는 나를 발견할 때 돌을 던지면 된다. 한 개 정도는 맞겠다. **앵**

윤냥 ●

다시 생각해보니 거울은 안보는 게 낫겠어요.
당장 덮어둬야 할 게 너무 많은..^^

걸어다니는 인간백화점? OK^^ 치유하는 글쓰기를 안내하다

박미라 ● 치유하는 글쓰기를 안내하는 상담가



마음공부의 여정에서 만난 한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해보려고 너무 목숨 걸지 마라. 내 성격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가? 바꿀 수 없다면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 내 것인 양 책임감 느끼지 마라……”

나는 내 운명에 대해서 그랬다. 내 운명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어떤 성공한 이들은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말한다. 노력하라. 최선을 다하라. 자기를 이기라고 말이다. 그러나 나는 나를 이기지 못했고, 오히려 내 운명이 나를 이겼다. 나는 운명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기독교 신자도 아니었는데 밤마다 성경 구절을 외며 내 가슴을 쓸어내렸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고등학교 때 국문학이나 연극학을 전공하기를 열렬히 희망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포기해야 했다. 대학교에서는 여학생운동 했던 것이 인연이 되어 대학원을 여성학으로 지원했다. 국문학이나 연극 말고도 나의 가슴을 뛰게 한 게 있다면 그건 여성들에 대해 얘기할 때였기 때문이다. 대

학원을 마치고 여성신문사 기자, 여성문화운동단체의 실무자로 활동하다가 페미니스트저널 이프의 편집장이 되었다. IT산업이 한창 번성할 때는 여성포털사이트의 콘텐츠 팀장이란 걸 하기도 했고, 여성리더십을 육성하는 리더십 양성기관에서 일하기도 했다.

그리고 직장생활 15년 만에 나는 모든 사회적인 일을 접었다. 직장을 7~8번 옮겨 다닌 뒤였다. 남들은 이력이 화려하다, 그렇게 많은 직장을 옮기다니 능력이 좋다고 부러워했지만 정작 나는 깊은 패배감에 젖어 있었다. 고백하자면 그렇게 자주 직장을 옮긴 이유가 뭔가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포기하고 쫓겨 다닌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모든 것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한 분야에서 꾸준히 전문성을 쌓아 자타가 인정하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 참 부러웠다. 그렇지만 그건 내 몫의 운명이 아니었던 것 같다. 어쨌든 6년 전쯤 마지막 직장을 그만두고는 한 달을 꼼짝없이 앓아누웠다. 건강상의 이유도 없이 말이다.

내가 직장에서 가장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었다. 일은 재미있는데 갈등이 생기면 실망감이

너무 컸다. 여성운동을 한다면, 휴머니즘이 기본이라면 서 어찌면 저렇게 이기적일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조직 내의 불화, 소통의 미숙, 무체제나 무질서, 리더가 보여주는 한계와 마주칠 때마다 몸과 마음이 너무 아팠다. 물론 그건 어디까지나 나의 시선, 나의 편견에서 바라본 세상이었을 뿐이며, 나 또한 미숙하고 부족했으므로 조직 내의 갈등에 일익을 담당했다.

어쨌든 이런저런 고민을 안고 있는 내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상담해왔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선배나 리더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으므로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했다. 나와 상담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났다. 동료나 후배들, 혹은 상사의 고민을 들어주는 일이 닷 동안의 내 업무가 되어버렸고, 정작 내 일은 야근을 해야 마쳤다. 내 몸은 피로로 지쳐갔다.

직장 일을 그만두면 내 희망과 행복도 끝나는 줄 알았는데 건강이 회복되자 의외로 마음의 희열이 찾아왔다. 어떤 책임감도, 어떤 명예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의 자유가 주는 기쁨이라고 할까. 누구도 아닌 나의 내면을 성찰하는 일이 행복감이라고 해야 할까. 그렇게 1년여를 보내고 있을 때 상담칼럼을 써보라며 글쓰기 치유 프로그램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 들어왔다. 오호! 이제야 뭔가 정말 나다운 것, 내 것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내게 주어지는 것 같았다. 당시만 해도 글쓰기치유란 것이 나조차 생소한 때라서 이런 걸로 돈을 받고 고객을 모을 수 있을까 회의하며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그런데 예상외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내 이름이 알려지기도 전에 다만 치유글쓰기라는 이름만으로 25명 정원에 100명 이상의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돌이켜보면 모든 경험에는 득과 실이 있는 것 같다. 심리적

인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치열하고 집요하게 바닥까지 경험해야 직성이 풀리는 나의 성격은 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지만 그 덕분에 현실에 대해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뿐인가. 어린 시절 가족관계에서 경험했던 아픔에서부터 결혼과 육아의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운동과 직장생활에서의 경험 모두가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사람들과 만나는 데 소통의 도구가 되어주었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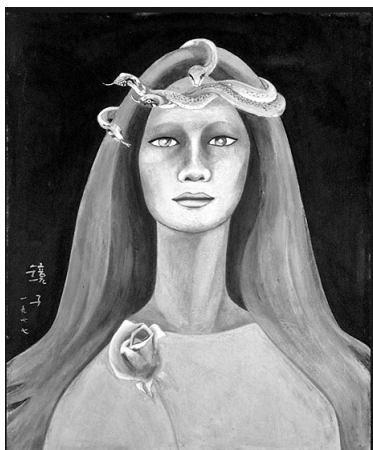
현재 나는 치유하는 글쓰기 안내자일 뿐 아니라 명상 안내자이기도 하다. 새로운 이력이 생기고 새로운 타이틀이 내게 부여될 때마다 얼마나 생경하고 부끄러운지 모르겠다. 페미니스트에서 치유하는 글쓰기를 안내하는 상담가, 그리고 명상안내자까지 매번 내가 나에게 적응하는 것이 너무 낯설다. 과거 직장을 그렇게 자주 옮겼듯이 지금도 나는 내 역할이 자주 변하는 걸 본다. 그러나 과거와 다른 게 있다. 과거엔 주어진 현실로부터 도망쳐 새로운 꿈을 꾸는 걸 반복했지만 지금은 주어진 역할을 받아들이며 거기에 또 다른 역할을 더하는 식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내가 애써 계획하고 노력하고 추진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그게 고통이었던 행복이었던, 저항이었던 회피였던 치열하게 살아내고 경험하다보니 운명이 나를 이곳까지 안내했다.

이렇게 가다가는 조만간 ‘걸어다니는 인간백화점’이란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만사 오케이!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더 깊은 성숙으로 나아가게 돕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기꺼이 하게 될 것이다. **박미라**

박미라 ● 대학원에서 여성학을 공부하고, 현재는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심신통합치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상태. <천만번 관찰아>와 <치유하는 글쓰기>의 저자. 정기적으로 치유하는 글쓰기 워크숍을 열고 있으며, 명상여행이나 명상학교를 만들어 재미있고 편안한 명상을 안내하는 일을 모색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시간에 또한 생각하기

김지현(나랑) ● 민우회 여성노동팀



난 뭐가 되고 싶었었지?

난 원래 국문과에 가고 싶었다. 이 사실을 며칠 전에 아주 깊이 생각해 보게 됐다.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얘기로 “난 원래 국문과에 가고 싶었는데, 철학과 가게 됐어” 대수롭지 않게 얘기한 적은 많았지만, 내가 왜 이 꿈을 기각했는지, 그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같이 사는 친구가 국문학 전공이라 그녀 방 책꽂이에 꽂힌 소설책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다. 한 2주간 방에 처박혀서 박완서 소설을 일대기 순으로 읽어 내리면 참 좋겠다, 왜 <나목>에서 시작해서 <그 남자네 집>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지, 마흔의 박완서와 일흔의 박완서는 어떻게 같고도 다른지 그런 걸 파헤쳐보면 재밌겠다... 그러다가 퍼뜩, 스물이 되기 전 내가 가졌던 꿈들이 떠올랐다. 난 뭐가 되고 싶었었지?

고등학교 때 꿈은 국문과에 가서 문학평론가 또는 연극연출가를 하는 것이었다. 중2, 고2 때 국어 선생님의 영향이 컸을 거다. 고등학교 때 교지에 모 대학 국문과에 입학한 동문 선배가 신춘문예 희곡 부문에 당선되어서 당선소감과 희곡이 실린 적이 있었는데 그 수상소감을 남몰래 필사했던 기억이 난다. 고1 때 베프랑 예쁜 색지에 시를 적어 코팅해서 서로 주고 받았던 기억도 있다.

오랜 꿈은 대학 간판과 눈치작전에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아니 전공 때문이라기보다, 운동권이 되면서 그 꿈은 자취를 감췄다. 막판 눈치작전에 점수 맞춰서 철학과를 쓰고 꼴통, 열혈 빨갱이, 정통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이 모인 철학과에 입학하자마자 난 추호의 의심도 없이 그 꿈을 내팽개치고 운동권이 되었다. 동기들과 수업 출석이 아닌 집회 출석을 경쟁하듯이 체크하며 학기 중엔 학생회 사업과 집회, 방학엔 세미나와 집회, 참 열정적으로도 몰려다녔다. 과에 하나 있었던 소설 소모임은 했다. 허나 강직했지만, 어렸고 이분법적이었던 나는 소설이 펼쳐주는 세계와 맑스-레닌주의적 세계관을 내 안에서 공존시킬 수 없었고 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압박

감에 시달렸다. 결국 노동 현장에 가기로 결심하면서 갖고 있던 소설책을 뭉땅 과실에 갖다 풀었다. 난 이제 안 볼 거니까 너희들 가지라고. 아, ‘통합’이라고는 눈꼽만큼도 할 줄 몰랐던 어리석은 중생이여.

쓰다 보니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가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함은 아니다. 그리고 보니, 요즘의 나는 업무 몰입도가 현저히 떨어진 상태이다.

내가 꿈꾸는 클라이막스

제주의 푸른 밤, 바다가 보이는 어느 카페에서 친구와 함께 미래 여행을 하면서 떠올린 내 삶의 클라이막스는 무언가 대단한 것을 성취한 순간이 아니었다. 살림을 꾸러가기 위한 육체노동과 세상을 바꾸기 위한 활동과 자기표현을 위한 예술행위와 몸 건강, 마음 건강이 조화롭게 짜여진 일상, 자연 가까이에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일상이 내가 꿈꾸는 최상의 행복이었다.

자본주의는 ‘전인적 인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대안을 외치는 나의 삶도 대안적이거나 전인적이지 않다. 나는 이 사실에 깊이 절망한다. 맑스가 〈독일이테올로기〉에서 말했던, “아무도 하나의 배타적인 활동의 영역을 갖지 않으며… 내가 하고 싶은 그대로 오늘은 이 일, 내일은 저 일을 하는 것, 아침에는 사냥하고 오후에는 낚시하고 저녁에는 소를 몰고 저녁 식사 후에는 비평을 하면서도, 사냥꾼으로도, 어부로도, 목동으로도, 비평가로도 되지 않는”- 그런 삶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것일까?

운명의 부름을 기다린다, 간절히

누구보다 스스로를 운동적 인간이라고 생각해 왔던 내가,

요즘은 세상의 속도를 쫓아가려는 운동의 속도를 따라잡기 힘들다. 어느 순간 활동가가 아닌 사무직 노동자가 되어 버린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 사무직 노동이 움직임을 좋아하는 내 몸과 잘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괴롭다. 활동 하다보면 당연히 따라붙는 실무는 나의 창조성과는 거리가 멀다.

딱 고만큰,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일을 하려면 동료의 과부하를 외면해야 한다. 동료가 말을 걸 때, 싸가지 없이 사무적으로 모니터를 쳐다보며 대답하는 내 속 저 깊은 곳에서의 호통- “운동 이전에 인간이 먼저 되라” 흑흑, 그래, 난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그런데, 잠깐. ‘세상을 바꿔야 하니까, 활동도 재미있으니까’ 라는 이유로 몇 십 년 후에나 실현 가능할 것 같은 저 꿈의 장면은 사실 몇 가지만 포기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나의 일상이 될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일까? 쥐꼬리만한 월급이라도 받아 월세를 내야 해서? 전문가가 되지 못할까봐, 운동판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까봐 불안해서? 세상을 빨리 엮어버리고 싶은 욕심? 나만 즐겁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죄책감? ‘일’을 안하면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것 같은 강박?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내면의 심연에 닿아보고자 매일 아침 모닝페이지를 쓴다. 간절함이 가 닿으면 어느 날 운명의 부름이 들리려나. 떠올려 보면 가슴 벅찬 몇 개의 장면, 그 조각들을 나침반 삼아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 걸까? 어쩌면 진짜 삶이란 그런 것일지도. 

김지현(나랑) ● ‘생이 마구 가렵다’ 벅박~



故서혜란 부회장을 기억하며

권미혁 ●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가슴에 더 깊이 새겨지는 사람들

여성민우회의 역사는 활동에 참여한 많은 사람의 힘과 땀으로 이루어졌다. 어느 한사람 소중하지 않은 이 없겠지만 우리들 가슴에 더 깊이 새겨지는 사람들이 있다. 먼저 하늘나라로 간 민우회 동료들이다.

9월 1일 1주기를 맞았던 최명숙 전 대표가 그렇고 오늘 '나의 삶 나의 이야기'의 주인공인故서혜란 선생님(이후 서혜란)이 그렇다.

여성운동을 생활의 영역으로 확장시켰던

서혜란이 민우회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89년, 민우회 출범 3년 째 되던 해이다.

민우회는 당시 선도적인 정치투쟁체가 주류였던 운동 상황에서 드물게 대중운동을 표방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향과는 달리 실제로 대중의 이해를 조직하는 것은 쉽지 않아 생활 속에서 여성들과 만날 공간과 실천할 거리를 찾는 것이 고민이었다. 돌파구를 찾던 이옥경 당시 부회장이 주목한 사람이 바로 서혜란이었다.

서혜란은 유기농 먹거리 운동 1세대로서 한살림 설립에 참여하고 있었고, 민우회 주부분과는 소비자운동, 환경운동, 농촌 살리기운동, 여성운동이 결합된 아이템으로 먹거리운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유기농 먹거리 관련 생활협동조합을 건설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지금은 광범위하게 이에 대한 이해가 있지만 1989년만 해도 한살림, 카톨릭전국농민회 등 운동 세력 중에도 일부만 고민하던 주제였다.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먹거리를 유통, 판매한다는 것은 더욱이 보통의 노력이나 결심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생협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 노하우도 없던 상황이라 민우회는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 외중에 서혜란이 한살림을 나오게 되었고 민우회는 서혜란에게 유기농 먹거리 운동과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을 만드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기게 되었다.

우선 서혜란은 현일숙, 고혜정, 이금라, 이성미, 이해라, 양혜경, 오성숙 등 생협에 관심이 많은 멤버들을 모아 공부부터 시작하였다. '민우여성학교'를 통해 회원과 일반여성에게 유기농 먹거리 교육을 하였고 사랑방교실을 통해 생협운동의 필요성을 알렸다.

“민우여성학교에서의 서혜란 선생님 강의는 계계 생협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해준 계기가 되었어요.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의 건강을 위해 농약 없는 먹거리를 먹으려는 것쯤으로 이해하던 제가 선생님의 교육을 통해 운동으로서의 생협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알게 된 것이죠.”(김연순 생협 이사장)

민우회 주부분과의 소비자문제위원회로 출발한 이래 1989년 8월 22일 구성된 20여명의 생활협동조합 발기원들과 회원들은 출자금을 모으고,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만들고 사무실과 창고를 임대하여 이듬해 12월 16일 이효재 선생님을 초대 이사장으로 “함께 가는 생활협동조합”을 탄생시켰다.

민우회 생활협동운동은 여성운동을 생활의 영역까지 확장시켰다는 면에서 여성운동 내부에서도 민우회만이 갖는 강점이자 특성으로 평가된다. 특히 생활운동계에서는 아무나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 농산물 유통 사업체를 여성들의 힘으로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지금은 2만 2천여 명의 조합원을 가진 '여성민우회 생협'으로 건재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초창기 생협의 주역들, 특히 서혜란의 역할은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생활협동조합 : 여성의 힘으로 만든 대안적 생산과 소비시스템

● 나의 삶, 나의 이야기



공동체를 꿈꾸다

1992년부터 1993년까지 민우회 부회장을 역임한 후 서혜란은 1994년 몸이 굳는 병인 ‘전신경화증’을 선고받게 된다. 그리고 불치병을 가진 채 그녀는 경기도 화성의 야마기시 실현지에 정착하게 된다. 야마기시즘은 무아집, 무소유를 이념으로 삼는 고도의 무소유공동체를 실천하는 사상이다. 그녀 삶의 또 하나의 지향인 대안운동, 공동체운동에 몸을 던진 것이다. 무려 8년 동안 야마기시즘을 실천하던 서혜란은 2003년 경 야마기시를 떠나 다른 공동체를 꿈꾸게 된다. 아직은 완전한 무소유를 실천할 단계에 현실여건이 와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1년여의 준비 끝에 2004년 전북 장수에 정착한다. 장수에서 그녀는 작은 마을 만들기과 장류사업(된장, 고추장 등을 만들어 파는 생협 생산자 활동), 생협 관련 강의와 기고를 계속하였다. 이런 그녀의 발자취는 민우회 생협 소식지의 ‘서혜란 칼럼’과 홈페이지의 ‘서혜란의 생활재 이야기’를 통해 여전히 확인할 수 있다.

실천하는 여성, 서혜란

서혜란을 기억하는 이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그녀가 너무도 불꽃같은 삶을 살다 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헌신성, 낙관, 따뜻함으로 상징된다.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그녀의 헌신성이다.

“억척도 그런 억척이 없었어. 지지지 않고 전국으로 유기농 생산자와 교육현장, 그리고 조합원을 찾아 발로 뛰는, 그야말로 몸으로 보여주는 혜란이의 억척과 헌신성이 없었으면 민우회 생협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이옥경 전 민우회 부회장)

“처음엔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월급도 안 받고 일하셨어요. 그때는 생활재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나를 때었는데 무거운 쌀자루도 척척 들고... 어쩌면 그때 선생님은 이미 에너지를 다 썼는지 몰라요.”(이성미 전 남서여성민우회 대표)

여성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 여성의 임파워먼트에 유난히 확신을 가지고 있던 서혜란은 여성의 가능성에 대해 늘 설파했으며 남성중심적인 조직문화를 어려워했다.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적응력과 낙천성 역시 그녀의 장점이었다. 79년 남민전 사건으로 남편과 같이 구속되어 6개월 만에 먼저 출소한 후 고향동네에서 양장점을 차린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그럼에도 우러나오는 따뜻함 역시 서혜란이 갖고 있는 큰 덕목으로 기억된다.

새로운 물꼬를 틔운 활동가

지난 7월 13일 너무도 갑자기 서혜란 선생님이 운명하셨다는 연락을 받고 망연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까지도 밝고 힘차게 일하시는 모습에서 많은 이가 병마를 상당히 이기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아쉬움은 더했다.

1989년부터 1990년 초까지 짧다면 짧은 기간 민우회 활동을 했던 서혜란이 이토록 민우회의 역사에 강렬히 기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혜란은 누가 뭐래도 초창기 여성민우회 활동에 새로운 물꼬를 틔운 활동가이자 민우회 생협운동을 태동시킨 주역이다. 그리고 그녀가 구현했던 '생활정치'는 가정을 사적 영역으로 구획함으로써 공적 논의의 장에서 배제하고, 성별분업을 통해 가정의 영역을 여성 개인의 몫으로만 몰아넣던 가부장적 공사구분을 뛰어 넘는 활동이었다. 즉 일상생활을 사회적으로 정치화하는 작업이었던 것이다.

이는 현재 민우회가 주력하고 있는 활동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비인간적인 질서를 바꾸어 대안적인 삶을 꿈꾸었던 서혜란의 삶은 기존의 가부장 질서를 성평등이 실현되는 새질서로 바꾸려는 여성주의 활동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된다.

서혜란은 또한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은 용감한 운동가였다. 자신이 지향하던 가치와 일상의 삶과의 간격이 이처럼 좁은 운동가를 얼마나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서혜란은 이미 20여년 전에 '자기 삶의 변화를 통해 세상을 변화' 시키려는 여성주의 실천가였던 것이다.

무엇보다 여성운동과 그 운동의 의미가 잘 기억되지 않는 현실에서 민우회 운동의 중요한 장을 만들어낸 서혜란의 삶을 소중히 기념함은 우리의 책무라고 할 수 있겠다. 민우회와 민우회 생활협동조합의 오늘이 서혜란의 열정과 헌신에 빛지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민우회의 부회장이자 민우회 생협 전무이사로서의 서혜란 뿐만 아니라 시대의 아픔을 울곧이 몸으로 겪고 간 따뜻한 한 여성운동가 故서혜란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 **▲**

권미혁 ●



한국여성민우회 2대 부회장과 여성민우회 생협 전무이사로 여성운동과 생활협동조합 운동에 초석이 되신 생협 운동 1세대 故서혜란 삶의 여정

1952년 12월	경남 거창에서 출생
1978년	이남국 선생과 결혼
1979년	남민전 사건으로 구속(구속될 때까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서 활동)
1980년	석방
1984년~1985년	생활협동조합운동. 초기 쌀가게에서부터 한살림에서 활동
1989년~1993년	민우회 활동
1984년	지병인 전신경화증 발병
1994년 경	대안사회인 무소유공동체, '아마기시실현지 생활'
2004년	전북 장수에 정착(작은 마을 만들기, 생협 생산자로 장류사업, 생협운동에 대한 강의와 기고)
2010년	7월 영면에 들

실천하는 삶을 보여준 故서혜란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참여하는 회원이 아름답다! 회원참여기획단 “다다다” 풍경

오영식(수풀) ●



“다다다”가 뭐야?

“수풀, 다음 주 다다다 회의 좀 나와줘.”

“응. 그런데 다다다가 뭐하는 자리야?”

“아, 소모임 별로 한 명씩 모여서 소모임 활동 공유하고 중요한 회원활동이 있으면 같이 회의하는 자리야.”

작년 이 맘 때쯤이었나. 신생 소모임 “작심삼일”을 대표해서 회원참여기획단 “찐다한다했다”(줄여서 ‘다다다’)에 처음 참석할 때가 기억난다. 이제 와 고백하건데 처음에는 “우리 소모임 이런 것도 했어요!”하고 자랑하고 와야지, 사실 이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웬걸, 직접 참여해 본 다다다 회의는 무언가 쫄쫄한 감동이 있는 자리였다. 당시 회원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던 바람과 털털하게 웃으며 회의 진행하던 여진도 인상적이었지만 나는 다다다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들의 당당한 눈빛이 좋았다. 민우회를 격하게 아끼는 그/녀들의 진심이 전해진달까? 그 때 누군가 그랬다. 적극적인 회원확대로 어려운 재정 상황을 돌파하기로 했다는 상근 활동가의 공지에 “회원단체인 민우회가 힘들 때 회원이 품는 것이 당연하다”며 소모임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회원 확대하겠다고던 어느 회원의 말. 그렇다. 회원 단체인 민

우회의 힘은 조직화된 회원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나는 그 때서야 다다다 회의의 의미를 깨달았다. 각각의 소모임 단위로 조직화된 회원들이 모여 민우회를 애기하며 그 주체로서 다양한 회원활동을 함께 기획하고 진행하고 평가하는 자리가 바로 다다다 회의인 것이다. 다다다 회의는 민우회 회원활동에 생명력을 펴프질하는 심장과 같은 공간이랄까? 나는 그렇게 몇 차례의 다다다 회의를 참여하며 그/녀들의 당당한 눈빛에 도취되었고 그/녀들에게는 있지만 내 안에는 아직 부족한 민우회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환상의 쿵썽

2010년이 되고 작심삼일에 프마와 마법소녀가 새식구로 들어오며 작심삼일은 “다다다” 회의를 전 구성원이 돌아가며 참석하기로 했다. 그런 이유로 거의 반년 만에 참석한 다다다 회의의 구성원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상근 활동가도 은근한 카리스마 신기루와 꾀꼬리진행본능 폴로 바뀌어 있었고 소모임들도 작심삼일을 시작으로(…라고 자부함 :D) 자기방어훈련 소모임 “근육의 숨결”과 기타 소모임 “명치”가 합류해 더욱 풍성해져 있었다. 그 때문이었을까?



오랜만에 참여한 다다다 회의에서는 전에 없던 활력과 유쾌함이 넘쳤다. 회의 내내 수다는 끊길 줄 몰랐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톡톡 튀어나왔다. 특히 명랑운동회를 준비할 때 폭풍처럼 쏟아져 나오는 아이디어들에 흥미해질 정도였다. 5월 13일(목), 오직 명랑운동회 논의만을 위해 다시 시작된 다다다 회의는 “근육의 숨결” 슷돌이의 합류로 그 생기발랄함이 절정에 달했다.

“이거 재밌겠는데? 내가 한번 진행해볼까?”

“이 게임 준비물은 내가 트럭에 챙겨올게요. 행사장에 차는 들어가나?”

“박 터트리기 게임 이름은 임영박 터트리기 어때? 푸하하” 놀라운 물품 조달 능력의 오스칼과 트럭 모는 노자 슷돌이의 환상적인 추진력, 정색하고 디테일 챙기는 그래서 더 재밌었던 여울과 나무도 참 인상적이었다.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에 상근 활동가 중 한 명은 가벼운 두통을 느끼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삼천포로 잘 빠지는 회의는 처음이라며 다소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지 아니한가? 특히 회원에게는 활동이 일이 아니라 곧 삶이기에 활동 속에 삶의 언어인 수다가 살아있음은 정말 다행한 일이라 생각한다.

유쾌하고 치밀한 기획 회의와 상근 활동가의 숨은 노고 덕분에 명랑운동회는 성황리에 치러졌고 이에 탄력 받은 다다다 회의 참가자들은 곧이어 여름 회원 소풍도 기획했다. 뿐만 아니라 한때 다다다 회의 최초의 MT도 추진됐을 정도니 이 뜨거웠던 다다다 회의의 열기를 쉽게 짐작할 수 있리라. 또한 매번 회의가 끝날 때마다 찼하게 이어진 뒷풀이는 참가자들을 동료 이상의 끈끈함으로 이어주기도 했다.

주체로서의 회원

그리고 지금, 나는 다시 작년 이맘 때 쯤의 첫 다다다 회의를 떠올린다. 문득 지금의 나의 눈빛도 내가 동경했던 그때의 그/녀들처럼 꽤 당당해졌음을 깨닫게 되었다. 내 안에 보다 풍성하고 알록달록해진 민우회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확인하고는 글을 써내려가며 써-익 멋쩍은 웃음도 지어보았다. 회원의 주체적 역량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회의구조로서 앞으로도 회원참여기획단 “다다다”가 더욱 성장해가길 기대하면서 이 즐거운 글쓰기를 마쳐볼까 한다. **임**

오영식(수풀) ●

주인의 관계를 소통하려는 사회복지사 수풀, 민우회에서 답을 얻다.

생협법 개정, 생협이 더 큰 날개를 달다

국민 생활에 밀착한 더 많은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박제선 ● 민우회 생활협동조합 홍보팀

지난 2010년 3월 22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전부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지난 1998년 제정된 생협법은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국민 생활에 밀착한 활동을 펼치는 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9월부터 시행될 개정 생협법은 협동조합 7원칙이 고루 녹아들어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협이 더 큰 날개를 달 수 있는 생협법 개정, 우리 함께 꼼꼼히 살펴볼까요?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생협에서~

제45조(사업의 종류)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생산·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생협법 제45조 1항으로 생협이 가전제품 등 공산품까지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 전반을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떤 물품의 생산·공급 여부는 조합원이 결정할 일’이라는 생협의 원칙에 더욱 충실해 졌다.

생협에서 불안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 상호부조 사업인 공제사업 시작

제65조와 제77조(사업의 종류) ① 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3. 회원 또는 회원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

조합원 간 상호부조 사업인 공제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조합원 생활에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협동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생협’만 생협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제4조(명칭) ① 조합·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이하 “조합 등”이라 한다)는 그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 또는 “생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이나 “생협”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88조(과태료) ①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 생협법에 따른 생협이 아니고도 '생활협동조합' 이나 '생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 법적 제약이 없었다. 이를 악용해 개인적인 영리사업에도 '생협'이라는 간판을 내건 점포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이는 생협이 20년 넘게 조합원과 함께 쌓아온 공신력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제 그러한 악용 사례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되었다.

생협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 생협의 비영리 법인성 명확하게

제6조(성격) ① 조합 등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제50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② ... 잉여금배당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비율은 시중금리수준 이내로 하여야 한다.
- ③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다.

생협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해 '비영리사업'만 하는 법인임을 확실히 했다. 특히 잉여금의 처리를 엄격히 하고, 보건·의료 생협의 경우에는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영리적 사업전개를 차단하였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생협

- 협동조합 7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명문화

제8조(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 등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자연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생협법 제8조는 '협동조합의 일곱 번째 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명문화 했다. 생협은 조합원의 이익만이 아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지역 사회 공동의 이익과 좋은 가치를 실현하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는 생협, 생각만 해도 흐뭇하다.

생협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 사회 기여의 폭이 넓어진다 - 생협과 정부, 공공단체와의 협력 관계 구축 가능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조합 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공공단체는 조합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는 생협이 유기농산물 소비를 통한 유기농업 정착 등 생협이 그동안 쌓아온 공공적인 활동을 인정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는 생협의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 및 지원을 통해 생협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소비생활 영역에서 생협의 노하우에 기반한 생활 정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생활에 밀착한 좋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제선 ●

한국여성민우회 생협 홍보팀에 있으며 사무실 안팎으로 종횡무진!!

컷, 씬, 씨퀀스, 스토리… 한편의 영화

제3회 원주여성민우회 영상제작 시사회



윤숙영 ● Free Zoom신입회원

영상작업에 참여하기까지 나는! 원주여성민우회가 이 사업을 시작한지 3년째. 그동안 나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시간을 낼 수 없었다. 그저 참가자들을 향한 부러운 시선을 보낼 뿐.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조바심과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밀린 숙제를 기필코 해야 하는 맘으로 업무시간 조정 등의 합의로 기회를 만들었다. 시간 OK~, 수강료는 민우회 회원D·C~, 강의 받으러 원주영상미디어센터로 Go Go 씬~

타로에게 물어봐! 강의에 앞서 김정민 상임대표의 인사와 강사님인 열쇠수선공 장덕희 쌤(처음이라 장쌤의 세심한 배려를 경험하지 못한 덕에 그냥 무덤덤했다. 하지만 지금은 깊은 신뢰와 감사를 보낸다.) 소개가 있었다. 극(?)소수의 수강생, 장쌤은 영상작업하기에 딱 좋은 구성이라고, 그 말이 위안이 되었다. 그리고 정민대표님의 놀라운 영빨을 느끼게 하는 타로카드로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어떤 작업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구성원들 간의 에너지의 소통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강의는 요렇게 조렇게... 강의는 영화 감상과 이론 수업이 진행되었다. 첫날은 한 사람씩 짝을 지어 서로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상대와 역할을 바꿔 상대를 자신인 것처럼 소개하는 시간이었다. 미처 물어본 적이 없는 질문이 던져지는 상황에서 당황스럽기도 했던 아주 특이한 인터뷰를 경험하게 되었다.

주변에서 중심으로... 시간이 흐르고 카메라에 담고 싶은 주제를 정하고 기획안을 작성했다. 무엇을, 왜 담고 싶으며, 등장인물, 어떻게 담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간.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미 3년차까지 경험한 우러러보이는 참가자도 있었다.

사소한 일상인 것 같지만 나를 통과해가는 수많은 생각을 구체화시켜보고 싶기도 했고, 내가 보고 느끼는 것에 대한 공감 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로망의 한 자락이었다. 마음으로 상상할 때 무엇이든 찍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구체화시키라는 요구(?) 앞에서 더 막연하고 답답해지는데 헉! 소리가 절로 나왔다.

사람 또는 사물의 만남을 통한 자신의 이야기 전개 등의 조

언을 듣고도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을 타인들 앞에 드러내다고 생각하니 왜 이리 부끄럽고 소재의 빈약함이 온몸으로 느껴지는지 긴 한숨과 너무 복잡한 심정으로 뒤엎기기만 반복되었다.

지나 온 시간들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얼까? 남들과 많이 달랐던 점은 뭘까? 내가 나를 힘에 부치면서도 고집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한 끝에 현실적으로 촬영하고 이야기가 가능한 주제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민 끝에 나온 얘기를, 각자의 주제를 서로가 조언하며, 조심스러운 한 발을 떼기 시작했다.

컷, 씬, 씨퀀스, 스토리... 시작도 못하고 찢찢 땀 때 촬영 팁과 함께 용기를 불어 넣어주신 올 언나~들의 토닥거림 덕에 바로 대학가로 향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어색한 물음 쓰고 시도했던 인터뷰, 한 컷의 사물, 사인, 풍광들, 목소리만 나오거나 옆모습만 얼핏 촬영되었던 한계처럼 느껴졌던 촬영분, 각자의 주제와 목적에 따라 부산, 서울, 산으로, 들로, 동네 어귀에서, 새벽 식당 골목가로 카페를 들고 떠나 본 경험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 순간 차분하게 “스스로 하세요, 할 수 있어요.”하며 끝까지 스스로의 힘을 느끼게 해 주신 열쇠수선공, 촬영자를 믿고 자신의 내밀한 곳까지 보여준 고마운 분들의 마음이 모여 작은 한 편의 영화가 되었다.

시사회, 숨이 차올라 아찔한... 발걸음이 안 떨어졌다. 시사회 시간이 다가올수록 머리가 심하게 어지러워지고 속이 울렁거리고 긴장하는 것을 느낀다. 그런데 자꾸 탄짖까지 하고 있다. 그래도 가야지. 가서 맞닥뜨려야지. 힘겹

게 떠밀며 발걸음을 시사회장으로 옮겼다. 눈에 익숙한 얼굴들과 회원가족들, 게다가 민우회시사회 소식 듣고 오신 여러 관객들, 드디어 대표님의 인사에 이어 개봉박두~**암**

상영작품 소개



함께 짓는 맛있는 노동

(HDV, 16:9, 16분) - 주종미, 김정민
우리의 엄마일 수도 있고 누이일 수도 있는 그녀들의 인터뷰를 통해 밥이 소중한 듯 식당여성노동자의 노동도 소중한 가치를 인정받길 바란다는 내용

원시시대 최고의 신부감들 (DV, 4:3, 14분) - 권명숙

자연 속에서 먹거리를 찾는 즐거움에 빠진 사람들. 그들은 해마다 봄이 오면 화전을 해먹는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 아니라 누구나 함께 해볼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잔잔하게 보여준다.

우리동네 고물상 (HDV, 16:9, 19분) - 최윤경

집에 갈 때마다 지나치는 고물상, 그 안에서 인생을 보았고 폐기된 물건 속에서 희망이라는 걸 보게 되었던 것 같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가치와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것! 그 존재 속에는 다양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다는 것^^

담배이야기 (HDV, 16:9, 28분) - 윤숙영

그녀가 담배를 피운지 20년 되는 해, 흡연에 관한 주변의 인물과 이야기 속에서 여성 흡연의 경험과 경계를 들여다본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HDV, 16:9, 14분) - 김은아

생각지도 않았던 늦둥이 예주의 임신. 나이 마흔에 고민도 되었지만 출생과 육아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족들은 행복을 느낀다. 축복 속에서 태어난 예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주가 건강하게 자라길...

P.S. ❶ 위 작품은 DVD로 제작, 철천리에 판매 중! ❷ 다년간의 제작 활동으로 다져진 노하우/ 풍부한 제작진! ❸ 영상제작이 필요한 회원가족과 단체는 원주여성민우회로 문의(033-732-4116) 바랍니다.

윤숙영 ●

원주여성민우회 성교육강사로 활동, 다년간 운영위원도 하였고, 올해는 소모임에 참여하시며 성교육강사의 노하우를 후배 성교육강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여성민우회 재정사업

“아름다운 동행, 막~커가는 민우회”

다양한 먹거리와 소모임 공연,
가중해주는 악세사리와 소품 판매

- 일시 : 9월 11일 오전 11시~오후 8시
- 장소 : 라페스타 B동 4층.
남도 순 한우(라페스타 B동 401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을 위한 포럼

피해 특징과 사례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고 지속가능한 대안 모색

- 일시 : 9월 29일(수) 오후 3시
- 장소 : 일산동구청 2층 다목적실

자기성장프로그램

미술치유, 자기이해, 연극 및 통합예술치료,
의사결정훈련, 여성으로서 당당하기(참가하
실 분은 사전면담 과정이 있습니다.)

- 일시 : 10월 11일~11월 17일(매주 월, 수, 금)
저녁 7시~9시 30분
- 장소 : 민우회 교육장 (참가비 : 무료)

성폭력예방 및 성매매방지 생생체험 한마당 체험식으로 진행

- 일시 : 10월 9일(토) 오후 2시~오후 5시
- 장소 : 라페스타 거리

여성주의학교 “D● Dream~! 두드림!”

내 마음을 두드리다, 기존의 신화를 두드리
깨다,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다!!

- 일시 : 10월 29일~12월 17일(매주 금요일)
오전 10시~12시
- 수강료 : 8만원

민우열린강좌

영화 “어떤 개인 날” 이숙경 감독과의 만남
영화 관람 후 이숙경 감독의 이야기도 들어
보는 자리 마련

- 일시 : 10월 25일(월)
오전 10시~오전 12시

광주여성민우회

등하곳길 아동도우미 사업

등하곳길 아동도우미 활동을 통한

성폭력 없는 동네 만들기

- 일시 : 9월 1일~11월 30일
- 장소 : 북구 관내 초등학교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한

광주전남시도민 행동의 날

영산강 승천보 현장 행진 및 문화제

- 일시 : 9월 11일(토)
오후 2시~5시
- 장소 : 영산강 승천보 일대

수다+너머-네 번째 사선

호칭을 통해 들여다 본 여성의 사회적 지위
여성들이 불려지는 다양한 호칭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 들여다보기

- 일시 : 9월 14일(화) 오전 10시
- 장소 : 너나들이чат집

광주지역 아파트 관리사무소 순회

성폭력예방교육

- 일시 : 9월~12월
- 장소 : 광주지역 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군포여성민우회

운영위원 및 핵심활동가 워크샵

주민주조화와 리더십

- 일시 : 9월 27일~ 매주 월요일 총 5회
- 장소 : 군포여성민우회 교육실

소모임 네트워크

소모임들 간의 정보공유 및 친목도모

- 장소 : 교육실

한부모 여성가장 지원을 위한 바자회

물품판매 및 홍보

- 일시 : 10월 15일
- 장소 : 산본 중심상가 내

군포시 의회모니터링

행정사무감사 의회모니터링

- 일시 : 9월 3일~9월 16일
- 장소 : 군포시의회

남서여성민우회

반딧불세미나

여성주의 세미나 '다락방에서 타자를 만나다'

- 일시 : 9월 7일 오전 10시
- 장소 : 남서민우회 교육장

이달의 토론

쏟아지는 성폭력 대책들 사이에서 중심잡기

- 일시 : 9월
- 장소 : 남서민우회 교육장

활동가 워크샵

남서지부와 생협의 운영위원,

이사 및 활동가 대상

- 일시 : 9월 4일
- 장소 : 강화도 오마이스쿨

강화도 나들길 걷기

- 일시 : 10월 9일(토)
- 장소 : 강화도

서울동북여성민우회

2010 지역여성운동에 날개를 달자

[공간]을 꿈꾸다

서울동북여성민우회는 우리가 만드는 공간을 꿈꿉니다. 지역여성운동이 이뤄지는 공간 마련을 위한 후원행사

- 일시 : 9월 9일(목) 오후 1사~11시
- 장소 : 비어플러스

(쌍문역2번 출구 삼성세르빌 B1)

달맞이와 함께 보는 여성영화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

“재판에 졌지만 내 마음은 지지 않아.”라고 외치는 할머니와 지원모임 사람들이 함께 쌓아 올린 뜨거운 10년의 감동!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고군분투중인 송신도 할머니의 재판과 투쟁을 다룬 이야기.

- 일시 : 9월 27일(월) 오전 10시
- 장소 : 민우회 교육장

9월 수다多

풍성하고 여유로운 명절 한가위, 민우회 회원들은 어떻게 지냈는지 수다로 풀어보는 자리

- 일시 : 9월 29일(수) 오전 10시
- 장소 : 민우회 교육장

원주여성민우회

여성육구조사 모임

원주 여성육구 조사를 통해 민우회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모임

- 일시 : 9월 중
- 장소 : 민우회 교육실

언니네 베품시장

회원들과 원주시민들이 함께 하는 기부 및

나눔 행사

- 일시 : 9월 11일 오후 3사~5시
- 장소 : 밝음신평 앞 차 없는 거리

<책+차> 공간 개업

사무실 내에 북카페를 만들고 공간을 쾌적하게 만드는 새 단장 공사

- 일시 : 9월, 10월 중
- 장소 : 민우회 사무실

인천여성민우회

춤추는 인형애! 성평등에 날개를 달자

인형극 공연

- 일시 : 9월 9일 (목) 11시, 1시(2회 공연)
- 장소 : 부평아트센터

한자강사양성과정

한자 3, 4급 자격취득 및 한자강사양성교육

- 일시 : 9월 1일~12월 중.
화(오후 7~9시), 목 (오전10사~1시)
- 장소 : 인천여성민우회 교육장

희망찬 한부모 활기찬 아이

- 당당한 홀로서기

여성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명상치유 및 가족캠프

- 일시 : 10월 2일~ 30일 토요일
오후 6사~9시
- 장소 : 인천여성민우회 교육장,
부여땅 자연미술학교(충남 부여)

풍물 강습

사물놀이 기초부터

- 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장소 : 부평구 십정동 풍물 공간 '더남'

진주여성민우회

9월 회원만남의 날 독립영화 관람

- 일시 : 9월 17일(금)

- 장소 :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운영위원 워크샵

전체운영위원 교육

- 일시 : 10월 1일(금)
- 장소 : 새노리

알뜰살뜰 번개시장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보물로 바꿀 수 있는 기회!!

- 일시 : 9월 18일(토) 오후 2사~4시
- 장소 : 신안동 녹지공원분수대

상담슈퍼비전

- 일시 : 9월 3일
- 장소 : 본상담소 교육장

성교육강사 양성교육

- 일시 : 9월 28일~11월 4일
- 장소 : 본상담소 교육장

건강한 부모훈련(HPT) 8단계

- 일시 : 10월 6일~11월 24일
- 장소 : 본상담소 교육장

영성음악회

제니퍼베레잔 콘서트

- 일시 : 10월 6일 오후 7시
- 장소 : 진주MBC 공개홀

춘천여성민우회

2010 춘천여성문화제

춘천 여성들의 축제 한마당.

올 해는 몸/성을 주제로 공연, 놀이,
영화제 진행

- 일시 : 10월 2일 3사~9시
- 장소 : 축제극장 몸짓 (춘천시 효자동)

독자마당

민우회의 주인은 바로, 회원 여러분입니다! ♥

〈함께가는 여성〉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함께가는 여성〉을 읽고 느낀 점이나, 민우회에 바라는 의견을 보내주시면 '독자마당'을 통해 소개해 드립니다. 채택된 의견에 대해서는 민우회가 마련한 감사의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독자의견은 민우회 이메일 minw●●@womenlink.or.kr로 보내주세요.

신입회원 여러분 반가워요!

2010년 7월초 ~ 2010년 8월 31일

강나영	김은아	박시동	우정숙	이현주	차귀옥
강인중	김은정	박정민	위영원	이혜란	차전원
곽주연	김인자	박주현	유애리	이혜숙	최경옥
권선화	김지열	박현희	윤동남	이혜영	최문선
권성후	김태숙	사창숙	이길림	전정훈	최수진
김금순	김혜정	성시애	이명숙	정성민	최순덕
김노금	노현민	송민경	이미정	정호선	최애식
김세중	모순덕	신미향	이애영	조미숙	최정인
김수영	문정은	신유민	이은주	조유진	하미숙
김숙향	민아미	신유빈	이지은	조혜리	홍은숙
김영미	박수경	양효자	이춘명	지선애	홍주연

희비인상캠페인에 함께 해주신 회원님

2010년 7월초 ~ 8월 31일까지 이경숙 이은심 감사합니다^^

^^ 몇몇 오래된 회원들이 한 자리에!!

원유순 회원 집들이에 옛날 소모임 '고용평등TV모니터위원회'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였네요. 여전히 얼굴들~ 정말 반가워요^^



박재석(최윤선 배우자), 김정희, 전은미, 권수진, 박봉정숙, 한남선씨, 조성아, 이임혜경, 최운선과 그 쌍둥이들, 원유순과 막내딸

21세기 회원 확대 캠페인 21세기를 여는 2010명

요즘 웃고 사세요?

세상을 바꾸는 상큼한 걸음, 민우회.

함께 있으면 웃음이 납니다!

1987년에 생긴

명량한 여성단체 민우회 회원이 되어주세요!

민우회를 더 많이 알려주세요!

당신과 함께 차별없는 세상,

여성이 자유롭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사회를 바꾸는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가득한 곳!

세상을 바꾸는 즐거운 웃음을 만드는

21세기 여성운동단체 민우회와 만나세요!



회원가입 및 후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원 월 5천원의 기쁜 참여

정회원 월 1만원 이상 연 12만원 이상, 즐거운 참여

평생회원 1회 100만원 이상, 든든한 참여

문의 02)737-5763, friend87@womenlink.or.kr



함께가는 여성이 200호를 맞습니다

어느덧 200호.

짧지 않은 시간.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담겨있기에
더욱 자랑스러운 참여 200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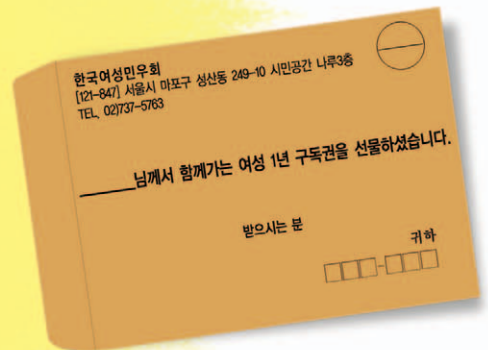
200호를 계기로 '함께가는 여성'을 보다 많은 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조중동에 찌들어 있을지 모를 학교후배들에게,
직장상사의 차별감수성 재고프로그램용으로,
민우회 회원으로 만들고 싶은 지인에게,
'함께가는 여성'을 보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엄마에게, 언니에게, 딸에게 그리고
나누고픈 좋은 누군가에게
'함께가는 여성'을 선물해주세요.
누군가에게 보내는 '함께가는 여성' 1년 구독권을
곧 민우회에게 보내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함께가는 여성' 1년 구독권을 선물 하고 싶으신 분은
보내는 분, 받는 분(주소와 성함), 그리고 선물하고 싶은 이유를 보내주세요.

**'함께가는 여성'을 누군가와 나누고픈
'당신의 이야기'를 200호에 담고 싶습니다.**



● 신청 및 이야기를 보내주실 곳 :
minwoo@womenlink.or.kr
02.737.5763

● 1년 구독권 30,000원
계좌이체 813-25-0011-869
국민은행 (사)한국여성민우회

회원문의 02-737-5763 팩스 02-736-5766

고용평등상담 02-706-5050 팩스 02-736-5766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02-734-1046 팩스 02-739-1047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2-739-8858 상담 02-335-1858 팩스 02-736-5766

한국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 02-581-1675 팩스 02-3679-2202

개포매장 02-445-8703 반포매장 02-537-8703 비산매장 031-384-8703 상암매장 02-304-8703 잠실매장 02-417-8703

서울남서여성민우회 02-2643-1253 팩스 02-2643-1252

신정매장 02-2643-6060 목동매장 02-2643-6077 방학매장 02-2662-6088 구로매장 02-861-6090

서울동북여성민우회 02-3492-7141 팩스 02-3493-9221 방학매장 02-3492-9999 중계매장 02-934-7999 창동매장 02-900-9958

고양여성민우회 031-907-1003 팩스 031-907-5009 상담 031-919-1366

주엽매장 031-919-1774 마두매장 031-902-3774 덕양매장 031-938-9774

광주여성민우회 062-529-0383 팩스 062-529-0384 상담 062-521-1366 성폭력쉼터 062-462-1366

군포여성민우회 031-396-0201 팩스 031-394-2343 매장 031-396-0261 상담 031-396-0236

원주여성민우회 033-732-4116 팩스 033-744-0113

인천여성민우회 032-525-2219 팩스 032-525-2256

진주여성민우회 055-743-0410 팩스 055-746-9771 매장 055-746-7077 상담 055-746-7462

춘천여성민우회 033-255-5557 팩스 033-243-9746



 한국여성민우회 Korean WomenLink

(121-847)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49-10 시민공간 나루 3층 Tel 02-737-5763 Fax 02-736-5766
E-mail minwoe@womenlink.or.kr 홈페이지 www.womenlink.or.kr